금주의 법구–〈아함경〉
역경에 끄달리지 말고
순경에도 끄달라지 말라.
만물에 끝없는 축복을 주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22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연등회 참가 외국인 템플스테이로 사후관리

국제포교사회, 외국인 참가자 템플스테이 '인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불교에 대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니 참 좋네요." 〈데이비드(캐나다)〉

불교계가 자랑하는 한국 대표 문화축제인 연등회. 여기에 참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체험 네트워크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밖으로 나가는 국제포교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포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는 최근 연등회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 6월 14일에는 연등회 내빈으로 참관한 벨기에 대사를 비롯한 벨기에 대사관 직원들이 진관사에서 1일간 템플라이프를 진행한데 이어 7월 6~8일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로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두 차례의 템플스테이는 연등회 참여 후 불교문화를 알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져 기획됐다.

이병진 국제포교사회 홍보부장은 "국제포교사회는 연등회 서포터즈 교육의 실무 진행과 연등회 제등행렬에서 내빈관람석 안내 등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참가한 외국인 관계자들과 행사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라며 "가장 먼저 연등회 내빈으로 참여했던 벨기에 대사를 비롯해 대사관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행사 후 반향이 좋아 서포터즈들에게 이메일로 추가 행사 의향을 타진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미국대사관 직원 등 외국인 연등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차기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등회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한 상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참가인원만 50만 명에 이른다. 늘어나는 참가자 수만큼 외국에서의 참가도 늘고 있다. 매년 정해진 인원을 뽑는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의 경우 출신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역대 최다인 26개국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2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관람뿐만 아니라 연등을 들고 행렬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런 외국에서의 참가 열기에도 연등회 참가자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후속과정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강문정 연등회 보존위원회 팀장은 "글로벌 서포터즈만 하더라도 연등회뿐만 아니라 사전 교육에서 불교문화와 한국전통문화를 배우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연등회 참가자들의 면면도 유학생들에서 한국거주 직장인,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변하고 있어 불교 포교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불교계 포교 단체들이 나서줘야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국제포교사회가 주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연등국제선원에서의 2차 템플스테이 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타인 추천 의향'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 의사를 밝힌 이들이 93.3%(매우 그렇다 60%)에 달했다. 한국문화와 불교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내역도 '매우 그렇다'가 43.3%, '그렇다'가 50%로 긍정의사가 압도적이었다.

연등회 외국인 참가자 증가
불교문화 관심에도 관리부족
2차례 템플스테이, 열띤 호응

타인추천 의향 '93.3%' 달해
108배 · 염불 · 선수행 만족↑
"기관 협력, 국제포교 새 장을"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분야다. 명상, 포행 등 진행 프로그램 중 108배가 가장 만족도(27.8%)가 높았다. 향후 희망 프로그램도 발우공양과 사찰음식 만들기에 이어 염불수행이 꼽혔다.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국제포교사회는 템플스테이 뿐만 아니라 연등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명상,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용한 국제포교사회 템플스테이부장은 "연등회를 연결고리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재한 외국인들을 묶어 네트워크화 한다면 이들 중에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또 신심까지도 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불교 세계화의 또 다른 부분인 만큼 유관 기관들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 비구니계의 원로이자 조계종 명사인 태허당 광우 스님이 7월 18일 오후 4시 5분 주석처인 서울 삼선동 정각사에서 법랍 80세, 세수 95세로 입적했다. 15살에 출가사문이 된 광우 스님은 법화행자로서 80년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각(正覺)의 길을 걸었다.

'正覺의 길 80년' 광우 스님 圓寂

〈정각〉 〈원적〉

한국 비구니계의 원로이자 조계종 명사(비구의 대종사격)인 태허당 광우 스님(정각사 회주)이 7월 18일 오후 4시 5분 주석처인 서울 삼선동 정각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80세, 세수 95세.

1925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광우 스님은 15살 때인 1939년 직지사에서 성문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같은 해 남장사에서 혜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했고, 1960년 서울 청룡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니계 수지했다.

광우 스님은 '불교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다수 소유한 한국 비구니계의 선구자였다. 1944년 최초의 비구니 강원인 남장사 관음강원을 1기로 나왔고, 뇌허 김동화 박사의 권유로 1956년 비구니 최초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원로 비구니 스님에게 주는 조계종 최초의 명사 법계를 품서받았다.

광우 스님을 빼고 전국비구니회의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전신인 '대한불교 비구니 우담바라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국비구니회의 현재 위상을 있게 만든 장본인기도 하다.

광우 스님은 1995년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돼 8년간 비구니회를 이끌면서 120억원의 불사비가 투입된 비구니회관 건립을 완공했다. 스님은 임원들과 전국사찰을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전력을 다했다.

1958년에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정각사를 창건하고 반세기가 넘게 도심포교에 진력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당시에는 보기 힘든 어린이 ·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일반신도법회를 개설하고 매년 열흘씩 〈법화경〉 강설을 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 마련된 광우 스님의 분향소 영단.

18일 정각사서… 법랍 80세, 세수 95세
22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영결식 엄수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불사 완공 견인차
계층 · 정기법회로 도심포교 '새 장' 열어

정기법회를 열어 반향을 일으켰다.

황성기, 원의범, 홍정식, 김동화 박사 등 당대 최고 불교학자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서울 소재 유수 대학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훗날 지식인으로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광우 스님은 평생 〈법화경〉 공부를 남달리 해온 법화행자다. 포교활동도 주로 〈법화경〉 강설로 했다. 스님은 1956년부터 10년간 부산 소림사에서 〈법화경〉 산림을 했다. 사숙인 금룡 스님의 당부로 정각사 창건 이후에도 〈법화경〉 수행은 이어졌다. 조석예불을 마친 뒤 반드시 〈법화경〉을 한품씩 읽기를 수행의 정업으로 삼았다.

1986년 〈묘법연화경〉을 번역출간하며 대학 도서관까지 법공양했다. 이 책의 특징은 독송할 때 운율이 잘 맞고 뜻이 명료하게 번역된 점이다. 또한 스님은 법화경 6만 9천 84자를 매일 기도하듯 사경했다.

15살에 출가사문이 된 광우 스님은 80년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각(正覺)의 길을 걸었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쓴 선지식으로 많은 제자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늘 조용한 웃음과 반듯한 몸가짐, 따뜻한 마음은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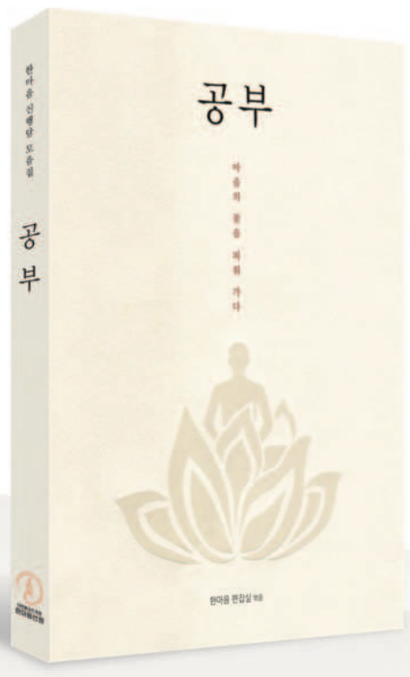
광우 스님은 지난 2009년부터 정각사 주지 소임을 상좌인 정목 스님에게 맡기고 오직 전법과 보림행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고령으로 인한 미질을 앓아왔고 7월 18일 상좌 · 손상좌 등 문도들을 한 자리에 불러 후사를 당부했다. 그 후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가 갈 뿐이다"라는 열반게를 남기고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한편, 스님의 분향소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각각 봉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허당 광우 명사 추모 특집 B1~3면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7월 18일 학내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39 · 40대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신임이사장 법산 스님이 법인기를 이양받아 들어보이고 있다.

“동국발전 대열에 함께 해달라”

동국대, 39 · 40대 이사장 이취임식 봉행

“오늘 소중한 인연을 잘 성숙시켜 동국발전의 대열에 열렬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7월 18일 학내 본관 중강당에서 제39대 이사장 자광 스님 이임식과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前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월탄스님, 성파 스님(영축총림 방장), 일면 스님, 성우 스님, 법타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6월 제3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광 스님은 지난 3년 간 이사장으로서 학교 안정과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2018년 1월 시작된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로 비롯된 극심한 내홍을 타결로 이끌었고, 올해 2월 관련 노동자 9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는 사회 안팎으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 같은 공로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자광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수여는 진제 스님을 대신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달했다.

자광 스님은 이임사에서 “오늘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날이다. 관계자 분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덕망높고 학문 성과가 훌륭하신 법산 스님께서 제40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 법산 스님은 교수로서 25년간 인재를 양성했고 13년 동안 정각원장을 맡아주는 등 동국대에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으로 학교를 공심으로 세밀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임사 이후 자광 스님은 신임 이사장 법산 스님에게 법인기를 이양했다. 법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학교법인 동국대는 모든 구성원이 인드라망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며 자기 직분에 충실히 실행할 때 세상을 즐겁게 하는 불국정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동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며 민족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나아가 우주법계 생명공동체의 평화라는 인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임명

원행 스님 19일 임명장 수여

“문화재 현안 해결 노력” 당부



조계종 신임 문화부장에 오심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문화부장 오심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장, 기획실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문화정책 현안들을 문화재청과 잘 상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신광사, 월봉사 주지를 비롯해 불교중앙박물관장,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 가치 알릴 전문가조직 출범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 출 · 재가 16인으로 구성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에 담긴 아름다운 문화가치를 일반대중에 분야별로 전할 출 · 재가 전문가조직이 출범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문화창달위원회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다. 문화창달위는 출가자 5인과 재가자 11인으로 구성됐다. 출가자로는 당연직 위원인 현법 스님(문화부장)과 화쟁위 위원 도법 스님,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문 재가자는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김봉렬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호석 화백 △로버트 파우저 前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변영섭 前문화재청장 △오세경 불교TV 방송작가 △오태수 백제예술대 교수 △유동종 다큐멘터리 전문PD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정천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부실장 △조현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등이다. 임기는 2년.

문화창달위원회는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불교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방향 제시를 비롯해 불교문화의 다양성 · 창조성을 제고하는 활동에 나선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패러다임에 맞춘 종단 과제를 도출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불교계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위촉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원장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

전문 강연의 ‘휴먼 라이브러리’

청년예술가 돕는 아트마켓까지

2020년 문화비전 선포 계획도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은 문화라는 큰 명제가 주어진 것 같다. 문화라는 틀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교류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각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불교문화를 어떻게 창달할 것인지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화창달위는 이어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진우 스님을 또한 부위원장은 원명 스님과 변영섭 前문화재청장, 이선민 선임기자가 맡았다.



문화창달위원들이 위촉식 이후 원행 스님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와 함께 문화창달위는 올해 ‘휴먼 라이브러리’와 좌담회, 청년 아트마켓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선정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대중강연 형태로 진행되며, 위원 2명이 40분씩 각각 자신의 전공에 맞춘 불교문화 콘텐츠와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다. 현재 9월 중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개최를 준비 중이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강연과 연계해 조계사 마당에서 청년 아트마켓이 열린다.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30여 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어 8월 중 진행될 좌담회는 위원들이 모여 불교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위원 1명이 불교문화를 향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1시간 동안 좌담을 이어간다.

문화창달위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별 사업 전개를 위해 분과회의를 마련해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분과회의에서 정리된 안건은 연 2회 전체회의를 거쳐 주요사업으로 선정한다. 문화창달위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한국불교와 조계종이 나아가야 할 문화콘텐츠 방향을 제시하는 2020-2030 문화비전을 선포할 방침이다.

“선학원 분원 약정서가 惡法 변질”

선학원미래포럼, 법진 스님 판결

6개월 맞아 회견 “밀실행정 여전”



선학원미래포럼 스님들이 기자회견에서 현 선학원 이사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올 초 이사회에서 분원관리규정을 개정, 분원등록 이후 형성된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토록 한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선학원은 “분원 등록 시 똑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내용은 2000년대 들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건주 · 분원장들은 “약정서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7월 18일 서울 견지동 나무갤러리에서 법진 이사장의 징역 확정판결 6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월 24일 선학원 임시이사회서 결정된 분원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 등록 당시와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 · 분원장 자격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일명 ‘재산 뺏기’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선학원이 기관지를 통해 “분원 등록 때 받는 약정서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날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1970~80년대 작성한 약정서와 2009년 작성한 약정서를 공개하며 차이점을 지적했다. 먼저 1980년대 작성된 〈분원재산 명의 변경동의서〉는 별지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유지자원으로 재단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09년 작성된 동의서에는 “분원을 등록 신청하고 창건주 권한을 위임받음에 따라, 이후 형성되는 분원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약정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 약정서와 달리 2009년 약정서는 “사찰소유의 모든 재산은 창건주, 분원장 또는 대표임원 개인 명의로 보존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선학원미래포럼 스님들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동의서와 약정서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한 이사회의 정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 약정서를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징계조항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도량정비를 위해 사찰 인근 토지를 매입해놓고 연계 토지 매입을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불사를 하는 풍토를 감안했을 때, 개정된 분원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선학원 소속 모든 창건주 · 분원장들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당초 동의서와 약정서는 도량불사를 거쳐 추가된 삼보정재를 재단에 귀속하는 의미여서 문제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를 징계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치명적인 조항을 이사들 몇몇이서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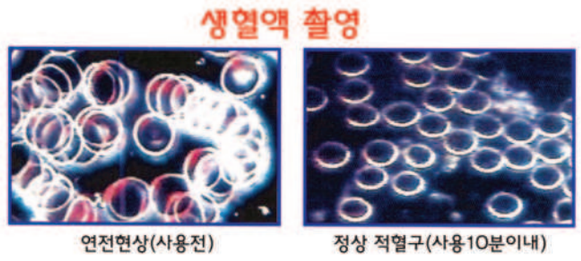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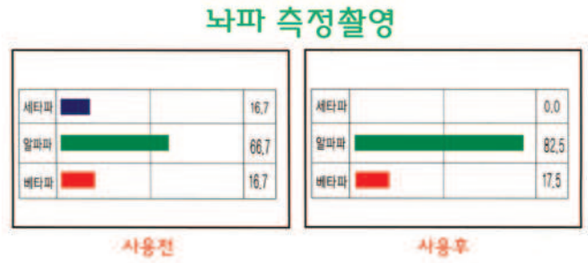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도시공원 일몰제’로 강제수용 내몰린 사찰들

2020년 7월 시행, 지자체 무리한 토지매입 추진 논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거주 · 종교시설 서울 참나선원
30년간 포교 · 나눔 이어왔지만
지자체가 공익 명분 내세우면
강제수용 피할 수 없어 난처

281개 사찰 도심공원 내 위치
조계종 사찰만 114개로 파악
일몰제 해당 사찰 구제 절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참나선원.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각 지자체가 긴급하게 사유지인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년간 공원조성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녹지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지탄을 우려해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각 지자체의 사유지 매입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토지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 약 340㎢, 즉 서울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녹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녹지 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지자체들이 공익을 명분으로 사유지의 토지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이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 관악구 덕수공원 옆의 참나선원(주지 성범)이다. 조계종 사찰인 참나선원은 30년 전 지금의 자리에 창건돼 경찰병원 포교, 비행청소년 교화, 지역민 자비나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도량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게다가 참나선원은 최근에야 토지매입에 대한 구청의 연락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식적인 보상비가 책정되진 않았지만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사찰 이전이 불가능한 금액일 것으로 참나선원 측은 보고 있다.

참나선원 총무 무관 스님은 “사찰부지를 비롯해 주변에 30~40평씩 개인 소유의 땅들이 있다. 공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사찰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도 공익목적의 수용을 인정하고, 참나선원은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자리에서 수행 · 포교를 이어가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무관 스님은 이어 “이번 일은 참나선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공원부지에 속한 전국의 수많은 불교수행처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사유지 매입에 대한 토지주들의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관악구에서만 40만㎡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아직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상황”이라며 “거주공간인 참나선원만 제외한 채 토지매입이 가능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30일 기준 정부가 파악한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등 도심공원 내 사찰은 전통사찰을 포함해 총 281개다. 이 중 114개가 조계종 사찰이지만 어떤 사찰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란다축제’, 글로벌 불교축제 발돋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계획 발표
9월 7일 동국대 일원서 개최

외국인 참여 글로벌마당 도입
국가별 체험, 명상 등 진행
교리경시대회 혜택도 증가

불교 미래 동량을 키워내는 불교계 대표 청소년 축제 ‘나란다 축제’가 외국인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한단계 발돋움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7월 17일 조계종 전법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회 나란다축제 계획을 발표했다.

9월 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나란다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마당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마당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와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知) · 덕(德) · 체(體) 3개 존으로 나뉘어 구성되는 글로벌 마당은 한국문화를 퀴즈로 배우는 ‘OX퀴즈’와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별 불교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또 외국인 불자들이 함께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미니 명랑운동회’로 상호 국가간 화합의 장을 펼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일반인 참여도 자유로웠던 K댄스경연대회가 불자청소년들을 위한 무대로 진행하기 위해 동국대 팔정도 특설무대로 장소를 옮긴다.

지난해 선보인 ‘나란다 장학퀴즈’는 시간대를 오후로 옮겨 군장병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장학퀴즈는 군부대와 학교 및 단체를 대표하는 2명이 불교교리와 시사, 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교교리경시대회와 중복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접수팀이 8팀을 넘어설 경우 시험방식의 예선을 거쳐 결선에 참가할 8팀을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은 결선점수 합산제도와 OX퀴즈 방식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오래 함께 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변모할 예정이다. 교재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초등부 기출문제〉로 일원화해 공부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였고, 기출문제집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붓다야! 놀자’는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경내에 설치된 7곳 장소에서 진행된다.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 · 고등부는 9월 7일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 고사장에서 펼쳐진다. 서울 동국대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및 단체에는 차량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관생도 부문은 9월 18일 오후7시부터 8시까지 각 사관학교에서 경시대회가 펼쳐진다.



시험문항은 중등부 40문항, 고등부 · 군장병 · 사관생도부문은 45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불교신행 · 생활 등에서 출제된다. 총 장학금 9000여만원이 지급되는 나란다축제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이 함께 시상된다. 또한 부문별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결과발표는 10월 4일 진행된다.

이밖에 나란다축제 행운권 추첨은 9월 7일 오후5시30분 팔정도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경품은 현장 인원에 한해 지급된다.

한편, 나란다축제는 지난 10년 동안 진화와 성장을 거듭해왔다. 나란다축제 연도별 참가현황을 보면 2009년 첫 대회서 2600여 명이 참여 한데 이어 2010년 6000여 명, 2011년 8300여 명, 2012년 8800여 명, 2013년 9500여 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1만700여 명으로 참가 연인원 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 “나란다 축제는 한국불교의 위상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다. 젊은 층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데 일조 하고 있다”며 “끊임 없는 노력으로 한국불교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올해 임관한 신임군승.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수행자 본분 지키며 군포교 매진”

조계종 신임군승 10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

올해 신임군승으로 임관한 불교 군종장교 10명이 수행자 본분에 따른 군포교를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과 신임 군승 10명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서 신임군승들은 원행 스님에게 임관신고를 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행 스님은 “군승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임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청년인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자리”라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심혈을 기울여 장병들의 심성 계발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신임 군승들이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면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자신의 군생활 인연담을 전하며 모든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제대 무렵 병참부에서 근무할 당시 사단에 군법당이 없었다. 그때는 3군사령부에 근무하는 법사께서 한 달에 1번씩 법회를 보러 오셨다”며 “그 분이 자광 스님이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인연을 마주하면서, 이를 소중히 여겨 한국불교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정 33관음성지순례사찰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경기 용주사, 신륵사 인천 보문사 강원 신흥사, 낙산사, 월정사, 법흥사, 구룡사
충남 수덕사, 마곡사 충북 법주사 전남 송광사, 백양사, 대흥사, 화엄사, 향일암 전북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부산 범어사 경남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보리암 대구 동화사 경북 불국사, 은해사, 직지사, 고운사, 기림사

깊은 산, 맑은 물, 새소리, 바람 소리를 벗 삼아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놓습니다.

천년의 긴 세월을 잊은 듯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한 고찰에서
회오리치는 번뇌도 훌훌 털어봅니다.

잔잔한 부처님의 미소가 위안을 안겨줍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밝은 지혜를 안겨주는 여행길,
33관음성지순례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33관음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문의/인장첩 구입:02-2031-2000



도시공원 해법 찾는 토론회

전북녹색연합 창립 10주년 맞아

전북지역 스님들이 참여하는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상임대표 회일)이 창립10주년을 맞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12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상임대표 회일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용봉사 법전 스님, 성덕사 지홍 스님, 염불사 행담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구룡사 대공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지게 될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서는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이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과 대응방안',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이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공원구역 지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인스님들, 불교복지 현장학습

봉녕사승가대학, 종로노인복지관서

학인스님들이 복지관을 방문해 불교복지에 대한 현장교육을 받았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7월 15일 복지관서 봉녕사승가대학 학인스님 2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부터 '불교사회복지' 를 필수과목으로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학인스님들은 복지관과 지역사회 현황, 복지관 역할과 기능, 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받았다. 이후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을 책임지는 생활관리사들과 조를 이뤄 10개 가정에 방문, 후원물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담소를 나눴다.

교육에 참여한 영호 스님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말벗이 됨으로써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어르신들이 임종을 기다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탬이 되도록 복지관이 원조한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제23회 만해대상 수상자들 모습. 왼쪽부터 와다 하루키, 정기현, 임영웅, 김우창 순이다.

"한일병탄 무효" 앞장서 알린 와다 하루키 교수 만해대상

만해축전추진위원회, 제 23회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일본 대표 진보 지식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회 종호)는 7월 15일 '제23회 만해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 · 발표했다. 올해 평화대상은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수상한다. 실천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받게 됐다. 문예대상은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단연 평화대상 수상자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다. 그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 5월 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골자로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주도한 일본대표 진보 지식인이다.

그해 5월 10일 일본 도쿄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 '한국병합' 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며 '한국병합' 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 조약' 도 불의부당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은 일제 식민지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양국 조야(朝野)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14명으로 시작된 공동성명 참여자는 3개월 만에 11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한일 지식인성명의 영향력은 컸다.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일본 총리는 2010년 8월10일 100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조약 발효로 시작된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적거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 성명에도 앞장섰다. 2015년 7월 한일 양국을 넘어 세계 지식인 524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평화대상 하루키 교수 비롯해
실천대상, 중앙의료원 응급센터
임영웅 · 김우창 교수 문예대상
8월 12일 시상식… 각 1억 원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 성명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면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 앞장선 와다 교수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그간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설연휴 윤한덕 前센터장(1968~2019)의 갑작스런 순직으로 그 존재 가치가 조명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아무리 작은 병원의 응급실에 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 前센터장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애쓰고 있다.

문예대상 공동수상자인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는 연극에 대한 사랑과 뚝심으로 반세기 동안 무대를 지키며 성공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 그는 원작을 한 글자도 훼손하지 않는 정통파 연출가로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연출가협회장과 연극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동랑연극상, 이해랑연극상, 파라다이스상 등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예대상 공동 수상자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1977년 첫 평론집 〈궁핍한 시대의 시인〉을 출간한 뒤 인문학 전반을 아우른 비평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섬세한 독해와 품격 높은 문체가 돋보이는 평론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한국 비평 문학을 이끌어왔다. 특히 만해 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깊이 있고 중후하게 다룬 평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평화 · 문학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前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前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前소록도 간호사, 고은 시인,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이 있다.

시상식은 올해 만해축전 기간인 8월 12일 오후 2시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열린다.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올해 만해축전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자유 · 평화' 를 주제로 만해마을 및 인제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11일 만해대상 21주년 기념 만해축전 전야제 및 홍보공연 등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동안 제21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제17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제8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격려

순창사암연합회, 느랭이산 347고지 방문



순창사암연합회(회장 동산)는 7월 9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순창군 쌍치면 느랭이산 347고지를 방문, 조사에 한창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암연합회장 동산 스님을 비롯해 황숙주 순창군수, 순창지역 불자들은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각종 먹거리를 나눠주며 무더위 속에서도 발굴조사에 매진하는 장병들에게 힘을 보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외신기자도 감탄한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사업단, 해인사서 1박2일 팸투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12~13일 합천 해인사에서 주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팸투어를 실시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언론사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은 예불과 108배, 단주 만들기, 명상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전주 연꽃문화축제 성료

우리문화연구원, 덕진공원 3만여 시민 참가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 성우, 금산사 주지)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북사암승가회의 후원으로 7월 13일과 1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연꽃향기에 취한 문화향연' 이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는 3만여 명의 시민이 찾아 수묵화 그리기, 다도, 합장주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각종 공연을 즐기며 풍요로운 주말을 보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지 홍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주 지 해 경
총무/교무 상 진
재 무 심 곡
서무/원주 벽 산
사무처장 효 능
복지문화팀장 철 오
대 중 도 암, 지 홍
일 구, 보 휴
지 봉
일 효, 일 명
지 휴, 혜 명
건설본부장 김호영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 화 031)836-2439,1080
팩 스 031)836-1081 홈페이지 www.bluelotus-temple.co.kr

종무소 직원
업무국장 한은옥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경리계장 공성희(여진)

시각장애인 문화행사 돕는 쌍봉사

7월 17일 선풍기 등 여름용품, 대중공양 후원



진안에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에서 대중공양 봉사를 펼쳤다.〈사진〉

진안 쌍봉사는 7월 17일 진안 정천면 초원가든 야외캠핑장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문화경로잔치에 참여해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진안 시각장애인협회가 개최한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150여 명과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문화행사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여름 보양식으로 차려진 점심식사와 음료, 과일 등을 대접했으며, 선풍기와 휴대용 손 선풍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평상시에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다행히 섬김봉사단 불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읍의 작은 포교당인 쌍봉사는 평소에도 지역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랑의 집짓기, 연탄나눔, 자비의 쌀 나눔 등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월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 복합공간 수영구에 문 열다

(재)범어청소년동네, 청소년문화의집 수탁 운영



부산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인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은 범어사 재단법인 금정총림 범어청소년동네가 수탁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단법인 금정총림 범어청소년동네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원장 허일수)은 7월 16일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1층 다목적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개소식에는 범어사 사회국장 환응 스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강성태 수영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은 부지면적 9913㎡, 연면적 996㎡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진로교육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 등 전문상담과 방과후교실, 북카페, 다목적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초기불교 연기법 핵심 배우자"

범어사불교대학, 8월 15 · 17일 이중표 교수 특강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요체를 이해하기 쉽게 배우는 강의가 열린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학장 경선)은 8월 15일과 17일 금정불교대학 대강의실에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강사는 이중표 교수다. 이 교수는 초기불교의 아함과 대승을 연결시킨 불교학의 대가로 평가된다.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범한철학회장, 불교학연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단체인 '불국원'을 설립해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란 무엇인가〉 외 다수가 있다.

강의는 각각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총 4강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 · 호남 청소년 화합' 불교 이끌다

맑고향기롭게 부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 · 호남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영 · 호남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15년 동안 3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지역감정으로 갈라진 그릇된 인식을 제대로 바라보고, 바른 견해를 가지길 바라는 발원에서 시작된 자리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7월 13~14일 신라대학교 내 백양생활관 및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에서 '제14회 영 · 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수여고 1학년 학생과 부산진여고 1학년 학생 총 240명이 참가했으며 출범식, 단합게임, 장기자랑 등 친목의 시간과 부산 명소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출범식에서는 범어사 재무국장 석경 스님, 교무국장 범종 스님,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과 공동 주최자인 김병근 KNN 대표이사, 고재영 여수부시장, 박태학 신라대학교 총장, 각 학교장 등이 참여해 축하하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수관 회장은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갈등을 화합과 희생정신으로 해소하고 올바른 사회 만들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력해야 한다"며 "오늘 참여한 학교 학생들이 화합과 희망의 싹이 되길 바라며 짧은 시간이어도 좋은 친구로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학생들도 화합에 함께 동의하며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해준 주최 측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7월 14일 신라대학교 일원서
여수여고 · 부산진여고 학생들
출범식 · 장기자랑 등 즐기며
지역감정 해소 톡톡히 역할

김예진 부산진여고 학생은 "이번 행사의 참된 취지는 바로 화합이다. 목적과 취지에 어울리는 자세로 모두가 행사에 동참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영 · 호남 화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현 여수여고 학생은 "새로운 만남을 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영 · 호남 학생들이 하나 되는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7월 13~14일 신라대학교 내 백양생활관 및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에서 '제14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영 · 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청소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영 · 호남 학생들이 참여해 서로 뜨거운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행사 후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역 문화차이를 빠르게 극복한다"며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편견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영 · 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2003년 여수해양과학고와 부산컴퓨터과학고가 참가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를 제외하고 여수중앙여고, 사직여고, 예문여고, 주례여고, 대덕여고 등 14회에 걸쳐 진행, 21개 고등학교가 동참했다.

한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법정 스님의 뜻을 따라 1994년 4월 발족해 영 · 호남 화합을 위해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등 복지관 후원과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등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복지는 대승적 사명"

천태종복지재단 7월 15일 마산회원노인복지관 개관



천태종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에서 내빈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경남 마산에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천태종복지재단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은하)이 7월 15일 복지관 4층 강당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을 알렸다. 개관식에는 천태종복지재단 대표이사 문덕 스님, 마산 삼학사 주지 월도 스님 및 창원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박성호 경남행정부시장 등 지역 어르신 4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문덕 스님은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 지침이며, 복지는 대승적 사명 성취 위한 방안"이라며 "오늘 개관한 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의 최첨단 시설이다. 앞으로도 최고의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하 관장은 "한국은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됐다"며 "저희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 내빈들의 축하도 이어졌으며 전통놀이, 먹거리 장터 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대지면적 2275.10㎡, 건축면적 967.55㎡, 연면적 4298.74㎡ 크기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다.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서예실, 상담실 등 다채로운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앞으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 △사회교육지원 △사회참여지원 △건강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 △가족통합지원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봉사와 나눔은 우리동네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미로 명상처유 선도량

마이산 탑사

회주 원암 혜명 스님
주지 청파 진성 스님

총무 정해 스님
신도회장 윤복길

봉사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 Tel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전북종무원장 진성
원로의장 수종
자문위원장 도광
교육원장 혜정
사정원장 혜안
감사원장 혜경
포교원장 승천

종회의장 법전
수석부의장 청명
부의장 정안
종회의원 혜정,혜경
혜담,혜신
법륜,혜일
보경,원만
원경,정수
법화심

부원장 도홍
총무국장 행담
재무국장 현법
교무국장 보현
사회국장 현덕
규정국장 혜성
홍보국장 대공
문화국장 법진
포교국장 선재
교임국장 현진

사부대중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Tel 063)285-9700 Fax 063)282-1536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대 비전

첫째. 종단 안정, 종도 화합, 종단 위상 제고

둘째. 종립 교육부 인가대학 설립 및 교육 인프라 개선

셋째. 중앙 삼원과 지방교구의 협치 체제 구축

8대 종책 과제

1. 종단 화쟁위원회 구성
2. 전통문화종단의 위상 제고 사업 추진
3. 종헌·종법 준수 풍토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4. 종립 교육부 인가 대학설립 및 교육제도, 환경 개선 사업 추진
5.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장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6. 종단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전국신도회 조직 정비
7. 투명한 종무행정 집행 및 지방교구종무원의 행정 제도 개선
8. 종단 홍보기능 강화 및 포교 발간 사업 확대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 집행부

‘염화미소’, 인류 최초의 행위예술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①



선문답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에서 출현한 치열한 선수행의 결과물이다. 그 누구의 문답도 아닌 바로 자신이 일상서 제기하고 점검하며 해답을 추구할 마음공부의 방편인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지원 스님은 지난 겨울 백담사 무문관 수행을 통해서 선문답(禪問答)을 사유(思惟)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 여름 다시 시작한 하안거 무문관 수행이 끝나면, 9월~10월경에 일반 대중들이 깨달음의 세계를 쉬운 강론을 통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선 법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지원 스님은 무문관서 고찰하고 사유한 나름대로의 ‘선문답’ 개념과 특징 등을 원고로 정리했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이를 지상 연재한다. 〈편집자주〉



‘무문관’ 안으로 들어가 치열한 수행을 하는 것은 ‘문없는 문’을 열고 대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사진은 지원 스님이 2018년 동안거를 보낸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전경.

선문답이란 무엇인가?

수영이나 골프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의 레슨을 받으면 실력이 향상되듯, 대선지식의 지도아래 실참(實參)하게 되면 누구나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선문답 하나마다에는 문답을 몸소 체험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진지한 구도정신이 녹아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 행위예술(performance)인 염화미소를 보이시면서,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을 가섭에게 전하셨다.

염화시중(拈花示衆)이라고도 하는 ‘염화미소’는 선종서 선(禪)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전하는 대표적 이야기로서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기록돼 있다.

뜻을 풀이하면 정법안장(正法眼藏)은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묘한 덕이며, 열반묘심(涅槃妙心)은 번뇌와 미망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실상무상(實相無相)은 생멸계를 떠난 불변의 진리, 미묘법문(微妙法門)은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란 의미이다. 즉 굳이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선수행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이다.

“이 세상은 마음 꽃으로 장엄된 세상임을 오직 가섭만이 알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꽃을 들어 보이신 세존의 자비롭고 섬세한 가르침이 담겨 있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몸을 바쳐서 이해하려는 가섭의 진지한 구도심이 드러나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존과 가섭 사이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심전심의 교감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선문답(禪問答) 이기도 하다.

선이란 본래 인도의 말로서 구체적으로는 선나(禪那)였다. 중국서 번역해 사유수(思惟修) 또는 정려(靜慮)라고도 한다. 모두 선정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라는 의미로서 정혜(定慧)를 통칭한 말이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모든 의미가 선에서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선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산천초목도 모두 수행과 깨침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문답은 선사들이 제자나 학인들을 깨닫게 하는 언행이었다. 선사들의 언행에는 말과 고함치기 그리고 몽둥이질까지도 포함한다. 그 언행 자체에 깊은 진리와 지혜가 응축돼 있어 말끝에 단박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긴 여운을 남기는 깨달음의 씨앗이 되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선문답이 깨달음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다.

선문답은 선에서 활용하는 문답이라는 정도의 뜻이지만, 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선문답을 통해 선을 체험하게 된다. 선문답은 선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유지시키고 선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선문답을 통하여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선문답을 통해 선이 그 지평을 넓히고 저변을 탄탄하게 해 왔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선문답은 형식적으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로서 스승이 제자를 대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문답의 내용은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주는 가르침으로, 스승의 깨침의 경지를 문답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제자가 수행과 깨침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자신의 공부를 드러내 보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문답의 경우 대부분은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의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스승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다.

선에 대한 문답은 하나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선의 내용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선사들이 선문답을 통해 선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고 선문답을 만들어 냈고, 그것으로 선의 역할과 효용을 삼아 전승하기도 하였다. 이런 것들을 널리 수집해 모아놓은 것이 전등사서(傳燈史書)나 공안집(公案集)이라는 형식으로 등장해 일종의 지도법의 기준 내지 깨침의 통과의례처럼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선문답은 철저하게 스승과 제자 사이의 내용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 누구도 엿볼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선문답을 이해하려 한다든가 흉내를 내려는 것은 금기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선문답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에서는 해석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선문답 본래의 의도와 가치에 대해 내용을 그대로 두고서 거기에다 제 3자의 입장서 일종의 해설이라 할 수 있는 평창(評唱)과 짤막한 주석이라 할 수 있는 착어(著語)를 붙여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것은 이전의 선문답이 지니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선문화의 다양한 표출이기도 하다.

선문답, 선에 생명 불어넣는 문화현상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는 禪 행위
선사들, 문답 통해 禪 도리 깊이 이해
선문답의 대표적인 특징은 ‘간명직절’

선문답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선문답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도 하다. 선문답을 통해 스승이 제자가 지닌 자성을 개발시켜 본래의 자신을 깨치게 하여 궁극에는 깨침의 경지로 이끌어주려는 교육방법이다.

스승이 제자를 받아들여 어느 경지로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즉 가르침이 필요하다. 아무리 방임주의적인 방식을 취한다 해도 그것은 곧 하나의 의도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스승이든 제자이건 간에 당사자가 선문답을 활용하기만 하면 그것은 교육으로 충분하다. 모든 교육은 선에서 자성이라는 입장을 기반으로 삼아야 비로소 작용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자의 행위와 자성 속에 이미 스승이 기대하고 있는 완전에 가까운 요소가 깃들어 있다. 스승은 그것을 겉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문답이라는 행위이자 교육이다.

선에서는 오직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스승과 제자가 직접 가르침을 주고받아 왔다. 이렇게 대대적적(代代嫡嫡) 해온 조사들은 모두 제자는 스승을 뵙고 스승은 제자를 만나 면수(面授)해 왔다. 이처럼 선문답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호 인간교섭에 의해서만 인간형성의 진실이 유지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과는 다르다. 깨침이란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자신의 눈앞에서 살아서 숨을 쉬는 절체절명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스승이 제자를 일깨워주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인 당사자가 깨치지 않으면 안되는 살아있는 공부법이다.

또한 선문답은 기존방식의 답습을 초월하는 성격을 띤다. 같은 사람이 같은 선문답을 거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별개의 선문답이다. 왜냐하면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에 대하여 그 누가 인용한다고 해도 답변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같은 답이 나온다하더라도 벌써 그 선문답은 상황이 달라져 있어 전혀 다른 선문답이 되어버리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이다. 이것이 선문답이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이면서 특징이다. 선문답은 그 형식 그대로 영원하지만 그대로 부단히 새로운 맛을 뿜어낸다. 이전에 제기된 선배들의 문답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거량이다.

선문답의 특징은?

선문답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는 간명직절하다는 것이다. 선문답은 주로 두 사람 아니면 단지 몇 사람만의 문답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문답의 형식이 참으로 단순한 형식을 취한다. 이런저런 상황설정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몇 마디가 골격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주가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일찍이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스님이 말했다.
“와본 적이 없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차나 마시게.”
또 다른 스님에게 물었다.
“일찍이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스님이 말했다.
“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차나 마시게.”

선문답이라고 해서, 그 질문과 답변이 반드시 언설을 통해 드러나는 문답일 필요는 없다. 임제선사의 할(臨濟喝)이나 덕산 선사의 방(德山棒)처럼 때로는 고함치기나 몽둥이질 등 제스처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 자리에 참여해 직접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선문답은 무슨 뚱딴지 같다느니 수수께끼 같다느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느니 등등을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문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의 상황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등장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설법이고 설법의 형상화이다. 선문답이라는 행위를 통해 설법은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선문답은 설법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설법의 형식을 초월한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언어가 된다. 그래서 선문답은 직설적이고 명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계속〉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염불 인생!

평생 수 천번 운명처럼 반복하는 내 염불! 내 귀에 힘들면 스트레스! 만성피로!
평생 수 천번 운명처럼 반복하는 내 염불! 내 귀에 편안하면 힐링 행복!

수없이 봤지만 일반 기존 시설은 가격도 몇배지만 소리공학적으로 염불정서에는 도대체가 맞지 않음! 이에서 오는 무의식 스트레스 누적이 조기치매의 원인이 될수도!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방문시 명단제공)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현장체험 후 마이크만 구입 가능!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장기할부 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명품소리훈련 강의, 전화상담)



관악산 화기 다스리는 비보사찰

〈火氣〉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⑭ 관악산 연주암

서울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은 봉우리마다 풍광이 남달라 문인들이 자주 찾은 명소였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다. 관악산 정상에 오르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암자가 있다. 연주암(戀主庵)과 연주대이다. '연주' 글자대로 해석해보면 주인을 연모한다는 뜻이다.

글자의 내용 따라 이곳에 여러 이야기가 실렸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고려의 신하들이 사라진 왕조를 연모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조선조 이야기로는 왕위에 대한 안타까움에 실렸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왕위를 버리고 이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주군을 연모했다는 내용이다.

세상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곳의 사연 역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라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의미를 붙이고 싶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깎아지른 듯 서있는 암석 위에 자리한 이곳에 오면 팍팍한 능선을 오르느라 근심을 내려놓고,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연주암의 모습을 보면 욕심이 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연주암 창건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사찰의 내력을 보면 신라시대 의상대사의 창건이라 적혀 있지만 사중에서도 그리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체적으로 고려후기에 창건되었다가 조선 초 중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성의 천도와 생각해볼 때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관악산 봉우리 모습은 삐죽삐죽하여 멀리서 보면 화로 같다. 한양을 도성을 정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었다. 무학대사를 시켜 계룡산을 살펴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개경과도 거리가 먼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직 고려를 지지하는 신료와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먼 곳은 내키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결과 한양만한 곳이 없자 도읍으로 정했다. 관악산이 품고 있는 화기를 진압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썼다. 제일 먼저 경복궁 앞에 불을 감시하는 상징의 동물 해태를 세웠다.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제작해 화기를 눌렀다. 후에 숭례문 남쪽에 연못[南池]을 만들어 수(水)로 화(火)를 다스렸다. 관악산과 도성 사이 한강이 있는 것도 위안이 되었다.

그래도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자 불교에서 전해지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었다. 건국 초기부터 유교를 국시로 정해 불교를 배척하던 왕실이었지만 자연의 위험 앞에서는 불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연주암은 관악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다. 산에 창건하는 것이 사찰이지만 정상 부근에 세우지는 않는다. 연주암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찰이 많지만 정상은 아니다. 그런데 왜 연주암은 정상일까?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정상 부근에 세우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이라 한다. 신라 말 도선국사가 주장한 이 사상은 흉(凶)하고 역(逆)한 곳에 사찰과 탑을 세워 그 기운을 눌러 왕조와 민생을 편안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고려왕조는 이 사상을 깊게 믿고 있었다. 고려는 서울을 남경으로 칭하며 중요하게 여겼다. 그때에도 관악산의 화기는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그 기운을 진압하기 위해 절과 탑을 세웠다. 지금 연주암 경내에 서있는 고려 양식의 3층 석탑이 그런 내용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주암은 불교를 배척하고 호기롭게 시작한 새로운 왕조의 한 계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사명(寺名)은 영주암(靈珠庵)

관악산은 풍경이 아름다워 문인들이 많이 찾았다. 조선 초 이곳을 찾은 문인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영주암(靈珠庵)이다. 세종 9년(1427)에 태어나 세조 2년(1456)에 요절한 조선 초기 문인 성간(成侃)은 관악사에 머물면서 관

산 정상 사찰 건립 이유
기운 누르기 위한 목적
설화 더해지며 연주대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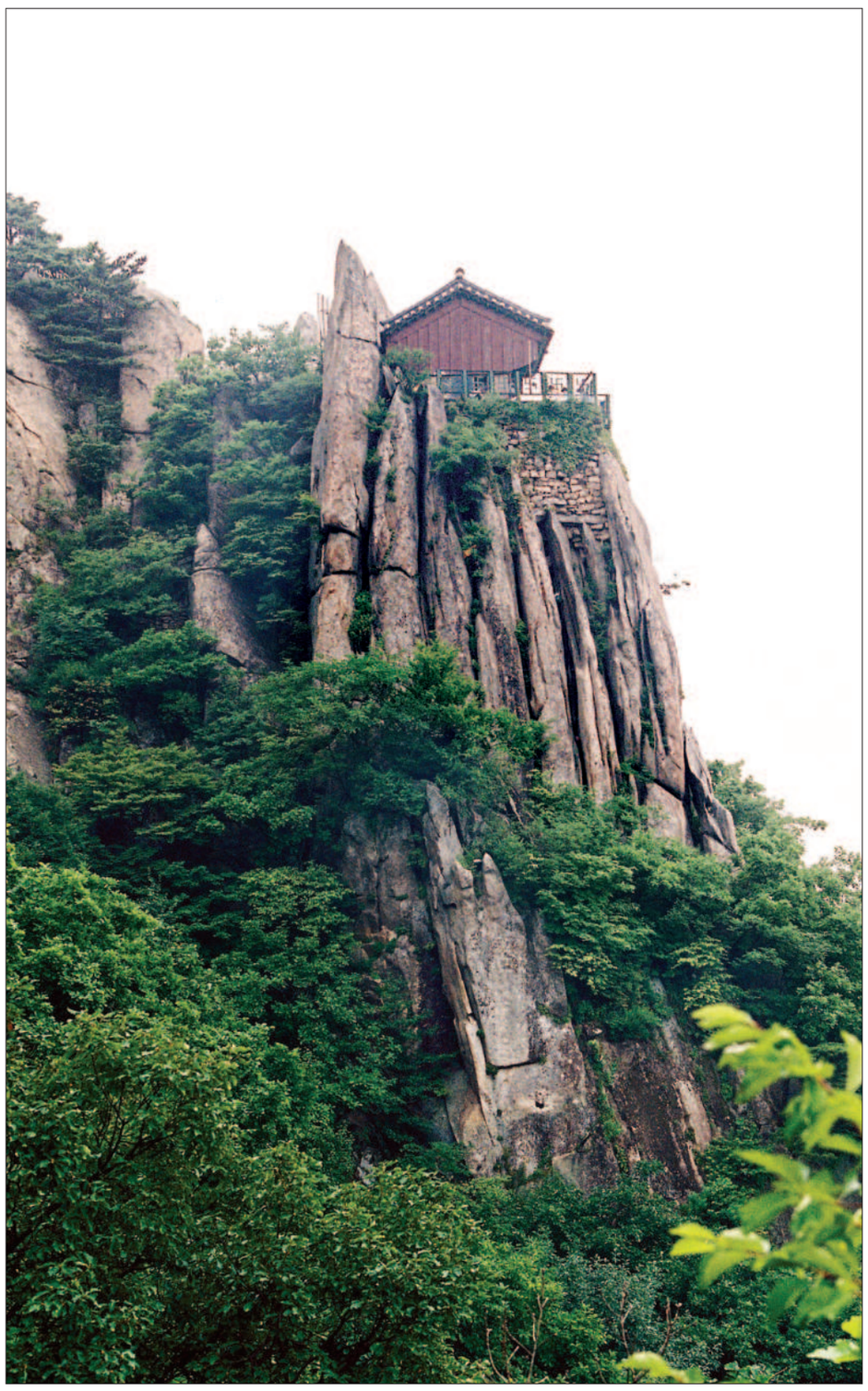
악산을 구경한 후 유북암기(遊北岩記)를 남겼다.

그 기록을 보면 승려의 안내로 관악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풍광을 감상했다. 그런데 관악 북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자 성간이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북쪽은 숲이 깊고 바위가 험해 가기 어렵다고 말렸다. 그래도 성간은 꼭 가보고 싶어 덤불을 베어 내고 넝쿨을 잡으면서 북녘에 이르렀다. 바위가 집 천장같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빙 둘러서 천 길이나 되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정신이 아찔하였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 두 다리를 뻗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고 적고 있다.

이 글에 나오는 관악사는 지금 폐사가 되어 터만 남아있다. 그 터에서 보면 영주대가 있는 곳이 북쪽이다. 지금 봐도 경관이 수려하니 예전인들 수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간의 글에 영주암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냥 그 광경만 바라보며 '조물주가 나를 위해 펼쳐 놓은 것 아니겠는가' 하고 자연풍광에 대해 만족감만 전하고 있다.

이곳이 영주암으로 표현한 것은 성현(成俔)이 남긴 허백당집(虛白堂集)이다. 세종 21년(1439)에 태어나서 연산군 10년(1504)에 졸한 그는 앞서 관악산에 오른 성간의 동생이다. 그는 '관악산에 올라가 영주암에 이르러 짓다[登冠岳山到靈珠菴]'는 시를 남겼다. 시의 내용 가운데 영주암을 표현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팡이 짚고 올라서 영주봉에 이르고 보니
천 길 깎아지른 절벽은 은하수에 닿은 듯
아래로 땅을 볼 수 없고 사방이 아득하네
한 걸음씩 기어오르니 머리털 거꾸로 서라
이 신세 허무한 지경에 붙여진 것 같구려
처음 바위 구멍을 따라 맨 꼭대기에 오르니
외로운 암자가 공중에 덩실 떠 있는 듯한데
창을 열고 보니 단청 빛이 찬란하여라
그 안에는 유마의 얼굴 석상이 안치되었고
별자리는 지척이라 손으로 딸만도 한데
석양이 넘어갈 무렵 세 장대쯤 불그레하네."



삐죽삐죽한 봉우리로 화로와 같이 생긴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연주암이다.

이때 관악산 최고봉은 영주봉으로 불렸던 것 같다. 영주암과 영주대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연주대에 유마거사가 있었다는 점으로 지금 나한신앙 이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명칭은 조선 중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 4년(1678) 4월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자신의 문집에서 관악산 영주대를 오른 감회를 남겼다. 지금이야 난간도 있고, 줄도 있어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오르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시절 이곳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허목은 다녀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관악산에 들어가 영주대(靈珠臺)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 산의 돌이 매우 험준하여 지금 생각해도 두려워 떨리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길과 비교하면 오히려 평탄한 길이었소. 늙은이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함에 다만 딴 사람들이 알까 두려우니 우습소. 못다 말하오."

그밖에도 17세기에서 18세기에 발간된 안헌징(安獻徵)의 구포집(鷗浦集), 심유(沈攸)의 오탄집(梧灘集), 김유의 검재집(儉齋集), 이만부(李萬敷)의 식산집(息山集)을 비롯해서 이익(李瀷)이 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 등 여러 문집에는 이곳을 영주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익은 1704년 4월 관악, 원각 두 절을 지나 영주대 아래에 이르렀다. 영주암 터에서 휴식하고 드디어 대에 올랐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주암도 폐사의 어려움을 빗겨갈 수 없었나 보다.

염주암을 거쳐 연주암으로 변천

사찰 명칭이 영주암(靈珠庵)에서 염주암(念主菴)으로 불린 것은 정조 무렵이다. '주군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나며 여기에 주군을 사모하여 이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다보았다는 이야기가 더해져 연주암(戀主庵)으로 굳어진 것처럼 보인다.

세간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정조에게 전한 이는 채제공(蔡濟恭)이었다. 그는 나이 67세가 되던 정조 10년(1786년) 관악산에 올랐다. 산행을 한 소감을 적은 것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이다. 그는 이곳을 염주대(念主臺)로 적고 있다.

정조 13년(1789) 12월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과 채제공을 소견하였을 때다. 정조가 태조의 장남 진안대군(鎭安大君)이 위화도 회군 이후 가족을 데리고 세상에 숨어 살 뜻으로 철원 보개산에 들어가 은거한 것과,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가 일에는 일체 간여하지 않고 하사받은 토지와 집을 가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가서 여생을 보낸 것에 대해 훌륭한 일로 말하였다. 그리고 양녕대군의 덕행과 의리도 그에 못지않았는데 그것은 세종이 온전히 보전해 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였다. 그러자 채제공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관악산 제일봉(第一峯)에서 경복궁이 바라보입니다. 양녕대군도 필시 여기에 올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차일(遮日)을 쳤던 흔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염주대(念主臺)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채제공의 말에 의하면 주군을 생각한다는 염주대의 내용은 그 무렵 세간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양녕대군의 이야기에 효령대군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연주대(戀主臺)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된다. 효령대군 이야기가 더해진 것은 그가 사후 과천 북쪽 동적리(同積里)에 묻혔고, 연주대에 효령각(孝寧閣)이 세워지고 영정을 모시면서 더욱 굳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 후부터는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박윤묵(朴允默)의 존재집(存齋集)에 연주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후부터는 그렇게 불린 것 같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수락산 염불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50길 44-155 Tel 02)938-9395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마음을 여는 '경청' 보시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⑭ 골드미스 딸, 엄마는 몰라도 돼!

박 여사의 딸은 30대 중반으로 대기업 과장인, 이른바 골드미스다. 주말마다 차려입고 나가서 귀가가 늦는 걸 보면 사귀는 남자는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엄마는 몰라도 돼"라는 대답뿐이다.

10대 때부터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승진도 빠른 딸이 대견해서 가능한 간섭을 안 하려고 해왔다. 그렁저렁 30대 중반을 넘기고 나니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데다 엄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딸아이가 요즘은 많이 걱정되고 섭섭하다. 지난 주말에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 딸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급기야 고성이 오갔다.

"친구들은 만나면 손주 자랑이 한창인데 너는 어쩌자고 그러면서 나이만 먹니"

"엄마, 또 그 소리야?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려면 나가서 니 멋대로 살어!" 라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다.

미래를 그려보는 NLP 시간여행

박 여사는 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할 욕심은 없으니 딸이 마음을 터놓는 사이라도 되기를 원했다. 말을 걸면 한 두 마디 입막음으로 더 이상의 소통을 막아버리니 서운하고 외로웠다.

딸은 대화를 시작하려는 어머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딸의 입장이 되기 위해 그녀와의 코칭은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신경언어프로그램)를 응용한, 딸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여행으로 시작했다. NLP는 행동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요소를 드러내 사고 구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단서를 준다.

- 귀가하는 딸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려보세요.
- 어머니를 대하는 딸아이의 표정은 어떤가요?
- 딸이 옆에 와서 앉는다고 상상해보세요.
-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감을 통해 딸과 함께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그녀의 얼굴엔 여러 모습이 그려졌다. 눈동자가 빠르게 달라지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놓고 손을 머리에 갖다 대며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 그럼 이제 미래로 가겠습니다. 5년 뒤 딸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상상해보세요.
- 딸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나요?
- 어떤 얼굴과 표정을 하고 있나요.
-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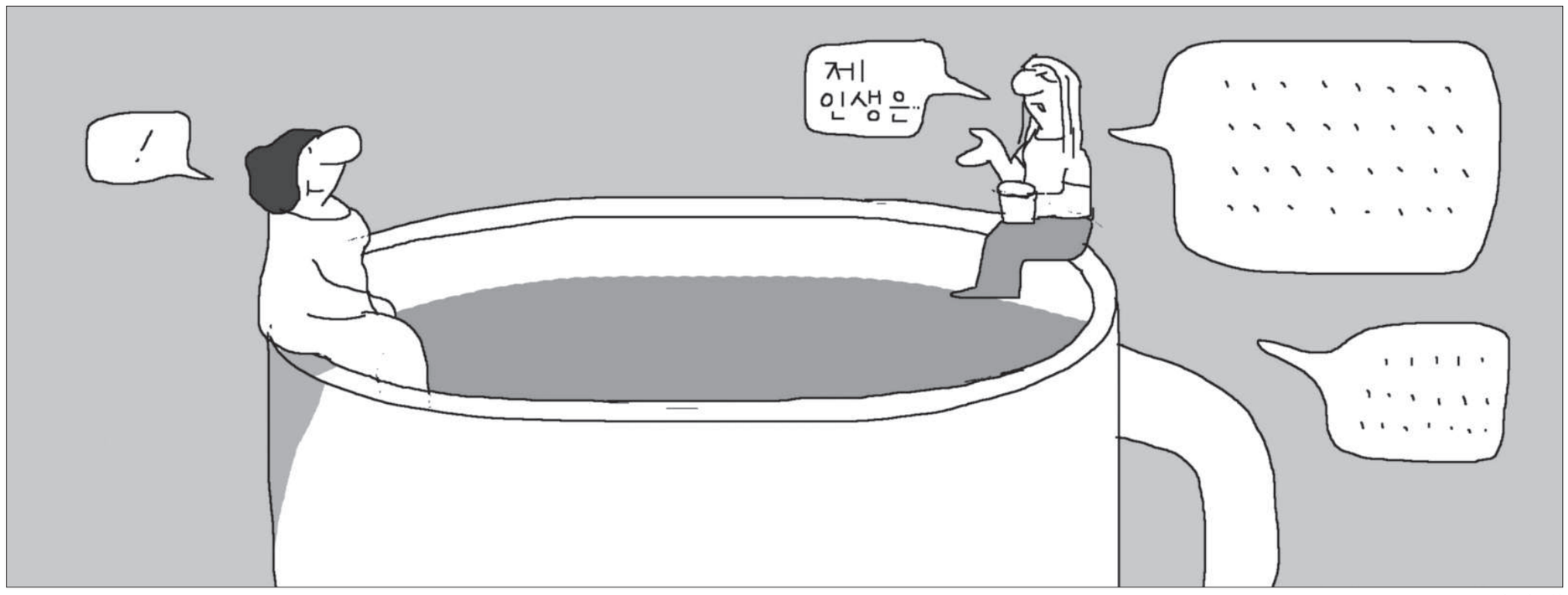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치켜든 그녀의 얼굴에 현재를 상상할 때 보다 더 섬세하고 강한 변화가 나타났다. 입 꼬리가 크게 올라가고 콧잔등이 조금 실룩였다. 2분이 넘는 미래로의 여행을 하고 눈을 뜬 그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믿음직한 남편과 건강한 손주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다니러 오는 모습을 상상하니 지금부터 행복해진다고 했다.

- 이번에는 딸이 원하는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보실까요? 따님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딸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있나요?
- 딸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나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가린 그녀의 얼굴에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망설이는 듯 그녀는 말했다.

"그러고 보니 딸이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었네요. 늘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이런 말만 한 것 같아요..."

NLP는 언어와, 비언어인 오감의 상호작용으로 경험과 인식을 끄집어내고 변화시키는 심리학 기법의 하나다.

엄마의 경청으로 딸의 마음을 열다

그 다음 코칭 시간에 그녀는 딸에게 해야 할 질문을 만들어왔다.

"10년 뒤 네가 원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이야?"

"그런 모습이 되려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결혼생활이 너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

"요즘 만나는 남자는 어떤 점이 매력이 있니? 너의 어떤 점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너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니?"

상대의 미래 그려보는 기법
경청통해 상대방 마음 읽어
불교의 대기설법 근간 형성

그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딸에게 하려니 오글거린다고 했다. 그때부터 코칭 이슈는 '딸의 말에 집중하는 경청하기' 로 바뀌었다. 코칭에서 익혀야 할 첫 번째 기술은 주의 깊은 경청이다. 경청은 인내하고 집중하며 상대의 컨디션에 자신을 맞추는 의지가 필요한 행위다. 말 속에 함축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박 여사는 질문을 하나씩 할 때마다 조용히 기다리며 딸의 대답을 최소한 5분 이상은 듣는 경청의 태도를 되풀이해서 실습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단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과 소망, 가치관과 열정에도 귀를 기울인다.

엄마의 질문을 들은 딸은 처음 크게 웃었다고 한다.

"엄마 같지 않게 왜 그래?"

하고는 "엄마,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볼까."

박 여사는 모처럼 딸이 자신의 묻는 말에 짜증내는 기색 없이 진지하게 응답해와 놀랍고 들떴다. 그녀는 2주 동안 딸과 네 차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딸에게 간섭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주로 듣기를 하는 대화는 처음이었어요. 딸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점점 편안하고 즐거운 태도가 되었어요."

그녀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딸과 얘기를 나누는 세화팅(세번째 화요일의 미팅)을 하기로 했다. 딸과 나눌 질문을 만들면서, 전화와 이메일로 대화를 잘하기 위한 코칭을 받았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딸의 겉모습만 봐왔나 봐요.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랍고 그동안 저의 태도에 반성이 되고 그래요."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에겐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된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 공감할 때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소망을 먼저 말하는 습관을 갖기가 쉽다. '엄마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아직 너는 어려서 몰라. 엄마 말 좀 들어' 같이 자녀를 미숙하게 여기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시키는 대화는 자녀의 입을 닫아버리는 날카로운 무기다.

일상의 보시, 듣기 훈련하기

듣기는 상당한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다. 우리 모두는 제대로 듣지 않고 말하기 바쁘다. 몰입해서 듣기는 어렵지만 노력하다 보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높아지고 그 힘으로 점차 듣기가 수월해지는 선순환이 된다. 듣기를 즐길 때가 되면 스스로 성장했다는 느낌을 갖는다. 잘 듣는 사람의 표정은 훈훈하고 편안하다. 무엇보다 어느 자리에서든 잘 듣는 당신을 환영한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은 불자가 밑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훌륭한 보시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듣기 기술을 소개한다.

1. 말하는 사람과 시선을 맞춘다. 말에 집중하면서 상대와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한다.
2. 표정과 몸의 움직임으로 공감을 표현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깜빡거리거나 '네~' '그랬군요.' 등 짧은 감탄사를 사용해도 좋다.
3. 중간 중간에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로 상대의 말을 간략하게 줄여서 되묻거나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질문을 한다.
4. 상대의 말이 끝나면 바로 의견을 달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지 말고 30초 이상 여운의 시간을 갖도록 침묵한다.
5.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 억지로 듣지 말고 상대의 말이 내포하는 감정과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

누군가에게 집중하며 그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는 붓다가 강조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의 하나다.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험은, 구태여 나서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느끼는 한 방법이다. 다른 일은 젖혀두고 초조해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

〈금강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어느 날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더 없이 평범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부처도 우리네와 마찬가지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

석가모니가 성불한 뒤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법을 널리 전파했는데 특히 왕사성의 기원에서 주로 설법을 했다. 그 중 사위성의 기원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급고독원이다. 수보리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원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초조해하지 않고 편히 머물 수 있을까
첫째,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둘째,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라

〈금강경의 지혜,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페이융〉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공고

입학문의 www.dongbang.org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Tel 02)745-2030 010-7236-0900 Fax 02)739-3470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 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불교학과(2년제 정규반) **모집인원** 00명

교육비 원서접수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0212-6468-11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특전
-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동방불교대학 졸업후 사교/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7월 15일 ~ 8월 23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19년 8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19년 8월 27일(화) |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접수서류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사성제, 내 삶에 투영할 불교 실천론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⑭ 사성제 체계와 연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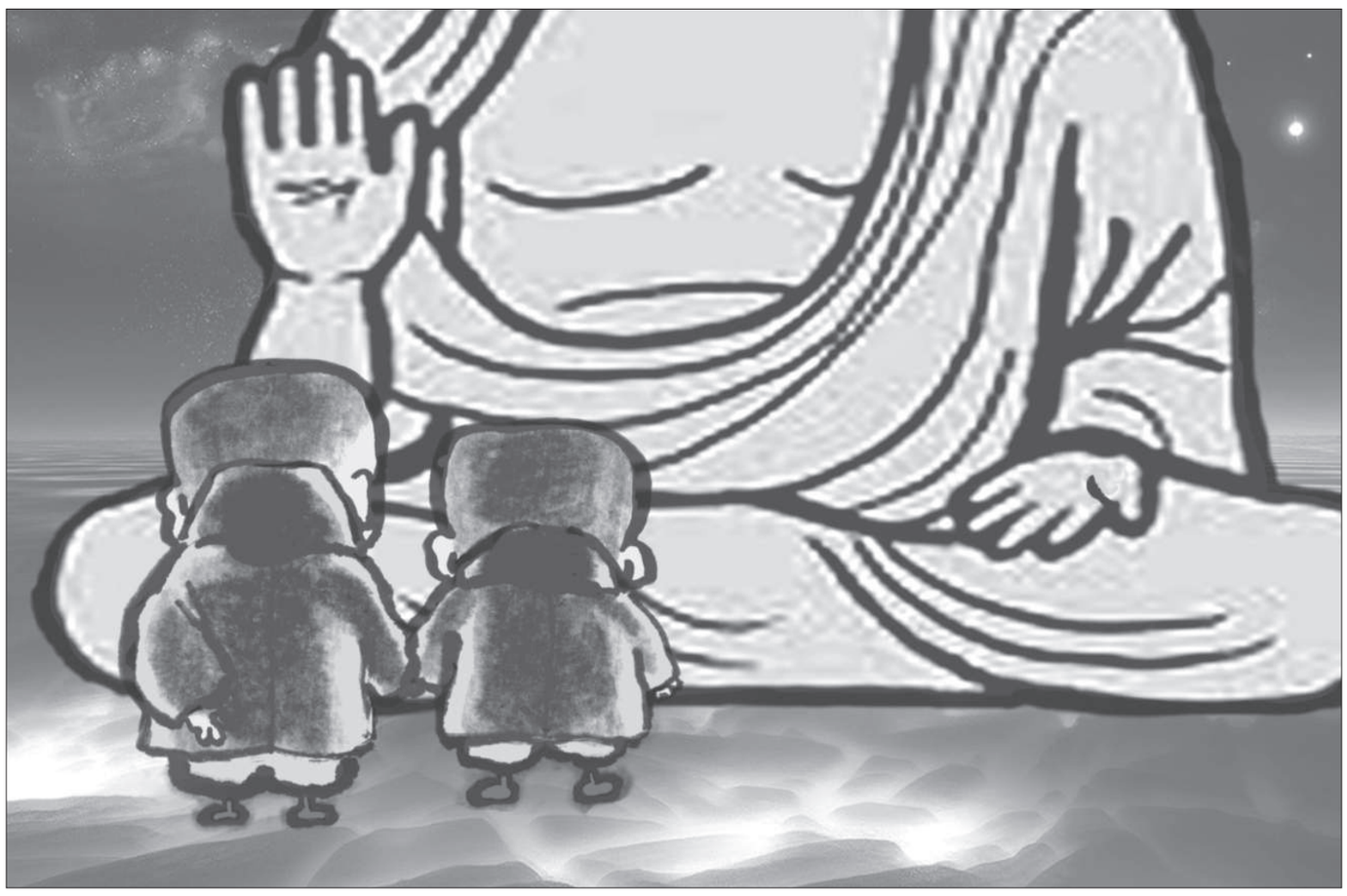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부처님께서 가르친 연기는 어떻게 사성제로 체계화 되는가? 연기가 사성제로 체계화 되는 과정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교리, 불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존재에 대한 인식문제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 속성이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했으며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무아와 무상을 아는 것은 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연기라고 했다. 즉 불교의 체계화는 근본적으로 무아와 무상에 대한 인식이 연기가 됨을 아는 것이다. 이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은 무명이며, 아는 것은 연기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이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가 고이며, '무엇 때문에 모르는가'는 집이다. 모르는 이유가 집이고, 모르는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인 것이다. 여기서 고집멸도에 대해 도식화해보면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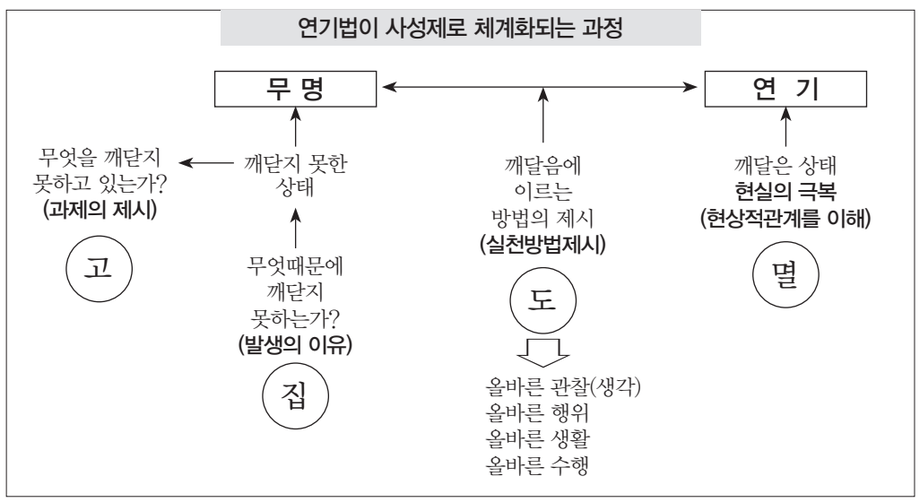
무명을 아는 상태가 바로 멸이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멸에 이르는 방법이 도이다. 그래서 두 세계를 나누어 놓고 보면 이것저것 모두 우리가 속한 현실세계이고 현실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깨달음의 세계로서 고집멸도는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고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불교의 실천론인 것이다.

여기서 존재의 인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하는 '존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불교를 안다고 했을 때 존재에 대한 인식론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2처 18계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육육법연기가 처음으로 성립된다. 다음 우리의 몸뚱이는 어떻게 생겼을까하는 오온연기를 설명한다. 연기가 어떻게 끊임없이 생사를 윤회하는가? 육육법연기는 시간에 대한 연기, 오온연기는 공간에 대한 연기, 12연기는 시공간이 통합된 연기이다. "내 법은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 간 것 같다"는 부처님의 설법은 바로 육육법연기와 오온연기, 12연기에 대한 이해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인식론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 존재의 인식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하고 실천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바로 육육법연기, 오온연기를 체득하는 방법인 실천론이 사성제의 실천이다. 불교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인식구조 상부의 이성적인 체계가 연기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론은 사성제이다. 부처님은 연기를 터득하고 깨닫기 위한 실천방법으로 팔정도를 설명했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 **불교의 이성적인 체계가 연기이며**
> **이를 실천하는 방법론은 사성제다**
> **무아와 무상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 **부처님이 설한 팔정도의 정견이다**



많은 불가촉천민과 노예와 서민들에게 불교를 전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다. 배우지 못한 서민계급과 노예계급을 포함한 전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불교가 필요하였다. 여기서 새롭게 탄생한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대승불교이다.

지금 불교는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부처님 당시에 출발했던 근본불교 보다는 대승불교와 선불교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승불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연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연기의 내용인 공으로 불교를 재도약한 것이다.

연기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치인 공을 창출한다.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인 보살이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다.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인간상을 구현한다. 위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며 아래로는 우주에 있는 모든 가엾은 중생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살과 새로운 가치체계인 공이 대승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승불교와 선불교

대승불교로 오면 근본불교에서의 팔정도가 육바라밀로 바뀐다. 육바라밀이 실천방법인 도가 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육바라밀이다. 팔정도의 여덟 가지 가르침이 여섯 가지의 가르침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론적으로 바뀐 것이다. 동아시아로는 근본불교가 아닌 대승불교가 전파된다.

한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이다. 부처님 당시의 근본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다. 중국에는 백마사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AD 64년이다. 64년이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500년이 흐르면서 불교는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가 싹이 틀 무렵이다. 중국에 전래된 대승불교가 그대로 한국에 전래된다.

이렇게 전래된 불교는 중국서 교리불교로 발전하고 산스크리트어로 된 모든 경전이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된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 중의 하나가 불경의 번역사업이다. 많은 경전의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중국불교는 교종이라는 꽃을 피우게 된다. 교종의 꽃을 피운 끝에서 중국화 된 새로운 불교인 선불교가 발생한다. 연기, 공이 불교의 근본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선불교로 구현된 것이다.

스님들은 참선 수행을 할 때 화두를 든다. 선불교의 꽃인 새로운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두가 등장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연기가 공으로 실천방법인 팔정도는 육바라밀로 바뀌게 된다.

선불교에서는 우리에게 "참선을 하라"고 한다. 복잡한 것보다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래서 육바라밀 대신 계정혜 삼학으로 바뀐다. 계정혜 삼학이 바로 선불교의 실천방법이다. 부처님 당시에 출발한 근본불교가 대승불교를 거치면서 중국에 이르러 선불교의 꽃을 피운다.

약 7세기부터 12-13세기까지 중국에서 꽃을 피웠던 선불교는 지구상 가장 화려한 정신문화의 한 장을 마련하게 된다. 불교의 흐름이 근본불교, 대승불교, 밀교, 선불교로 흘러간 것이다.

육바라밀은 누가 어떻게 이야기 하더라도 대승불교에서 가르친 진리구나, 계정혜는 선불교에서 이야기한 진리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의 실천에 대한 하부구조이고, 상부구조인 인식론에 대한 구조는 연기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조는 대승불교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존재에 대한 인식론인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진 것이다. 엄밀하게 불교의 실천이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할 수 있다. 수행방법과 실천방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근본불교의 모습을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렸다.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부처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인식이 없어진 것이다.

불교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만큼 움직이게 된다. 정신적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만큼 실천방법도 병행되어야하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도 대승불교에서도 끊임없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영남대 의대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한 길



新 불교사자성어

㉖ 향상일로(向上一路)

'향상일로(向上一路)' 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언어적인 풀이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향상(向上)' 이라는 말은 생활수준이나 기술, 또는 실력 등이 더 나아졌다는 말로서, 전보다 진보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일로(一路)' 는 '단 하나의 길' 을 뜻하는데, 영어의 'Only One Way' 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향상일로' 라는 말은 선어(禪語)이다.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유명한 〈벽암록〉, 〈선문염송〉 등에 나온다. 처음 사용한 선승은 당나라 때의 반산보적(720~814) 선사이다.

그 뜻은 '최고의 깨달음(向上)' , '완벽한 깨달음' 이다. 또는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一路)' 을 뜻하기도 한다. 언어도단, 즉 의식적인 사고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최상의 극처(極處)를 가리키는 것이다.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세계나 경지를 뜻한다.

동의어로서 '향상일구(向上一句)' 라는 말이 있다. '최고의 완벽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한마디 말' 혹은 '키워드가 되는 핵심적인 말' 을 뜻한다.

'향상일로' 는 필자가 입산 시절에 오래도록 모셨던 탄허 스님께서도 서묵(書墨)에서 즐겨 쓰셨던 문구이다. 필자는 10대부터 20대까지 약 7~8년 동안 탄허 스님을 시봉했는데,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좌우명이 될 만한 글씨를 청하면 이 글귀(향상일로)를 많이 써주었다. 물론 그 뜻은 최고의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라는 뜻일 것이다. 아마 이것이 탄허 스님의 젊은 날의 이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탄허 스님은 타고난 천재이면서도 노력파였다. 어느 하나의 텍스트를 강의할 때는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하셨지만, '불교학' 이나 '동양학'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때는 6개월의 강의기간 동안 책을 보거나 필기 노트를 본 적이 없다. 대부분 그 내용을 암기하고 계셨는데, 큰 흑판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빽빽하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강의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이라는 말이 있다.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는 뜻이다. 나날이 향상하고 발전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탐구정신과 노력을 강조한 교훈적인 명구로 유가의 경서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인데, 필자가 매우 좋아해서 메모지에 적어 책상머리나 컴퓨터 상단에 붙여놓았다. 이 명구를 볼 때마다 노력, 또 노력하려고 한다. 나 자신을 보다 인격적인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향상되어야 한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안일에 빠진 사람, 정신이 죽어 먼지가 된 사람이다. 그것을 서구적인 표현으로는 '성장이 멈춘 사람' 이라고 한다. '성장이 멈춘 사람' 은 자신을 갈고 닦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떠올려보면 사업이나 공부, 학문과 수행 등이 있다. 사업가는 사업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깨달음에서 향상,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격' 이다. 인격은 학문, 수행 등이 하나가 되어 언행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격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이나 학문, 수행 등에서는 '이것으로 끝이다.' 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완성' 이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일 뿐, 이 세상에 완성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무지에 의한 어리석음과 오만일 뿐이다.

천재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노력파는 성공하지만 천재파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재도 노력(향상일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금강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유정법 명 아뇩다라 삼약삼보리' 이다. '고정된 진리는 없다. 그것이 곧 최상의 깨달음' 이라는 뜻이다. 안일무사에 빠지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나날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향상일로가 주는 가르침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조주가 드러낸 '공고한마'

〈功高汗馬〉



격절록 강설

㉖ 설봉고간 평창 2

[評唱 2]

如今人只隨語生解 殊不知 趙州與雪峯相見. 州云 "不可從鼻孔裏入" 雪峯云 "趙州古佛 從此不答話" 已是與他相見. 且道這裏意是如何. 須是打破面前漆桶 始可入作. 後人不善來風 走向趙州語下作活計 到這裏若是通方漢 必知此二尊宿落處.

요즘 사람들은 말을 따라 지해(知解)를 내기 때문에 조주와 설봉이 서로 만난 것(相見 相見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주는 말하기를 "콧구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고, 설봉은 말하기를 "조주는 고불이다. 이제부터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이미(이것으로) 그들이 서로 만난 것이다. 자, 말해보라! 여기서 그 뜻이 무엇인가?

모름지기 바로 면전에서 칠통을 타파해야 비로소 들어갈(入作) 수 있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바람이 잘 불지도 않는데 조주의 말 아래로 달려가 활발하게 계교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사통팔달한 작가(通方漢, 통방작가)라야 이 두 존숙의 낙처(落處)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雪峯云 "趙州古佛 從此不答話" 此一句語 如金如玉 難酬其價. 雪峯雖答者僧話 終不去語句裏作繫驢橛. 後人多少錯會 妄去中間穿鑿 殊不知本宗猷. 此事若只在言句上 便不深屈古人 所謂玉女已歸霄漢去 獃郎猶在火爐邊.

설봉이 말하기를 "조주는 고불이다. 이제부터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일구어(一句語)가 마치 금과 같고 옥과 같아서(如金如玉)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설봉이 비록 이 스님의 말에 답은 했지만, 결코 어구 속에서 나귀 매는 말뚝(繫驢橛)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뒷사람들이 많이들 잘못 알고 망령되이 그 가운데서 어구를 천착하고 있으니, 그 근본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이 만약 단지 언구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인을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위 "옥녀는 이미 하늘로 돌아갔는데, 어리석은 사내는 아직도 화로 곁에 있네"라고 한 것이다.

雪竇道 "眾中總道 雪峯答他話 便成就下平高 難為作者" 又是錯會 喫雪竇毒藥了也. 此意與法眼話作兩橛一般 只為他一手擡一手搦. 只如 趙州勘婆子 且道 是勘破不勘破. 且道 雪峯是答他話 不答他話. 真如喆 拈趙州勘婆子話道 "天下衲僧只知問路 老婆要且不知脚下泥深. 若非趙州老人 爭顯功高汗馬"

설두가 말했다.

"대중들이 모두 말하기를 설봉은 '이 스님의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조주가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한다. 이와 같은 말은 설봉을 몹시 억울하게 하는 것이다. 설두는 그렇지 않나니,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본분종사는 낮은 것을 취해서 높은 곳을 고르게 하기에 작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앞의 염고를 참조할 것)."

그런데 또 이것을 잘못 알면 설두의 독약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뜻은 법안화작양궐화(法眼話作兩橛話, 법안이 두 개의 말뚝이 되었다고 말한 공안, 1칙 참조할 것)와 같은 것으로, 단지 한 손으로는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내리누른 것이다.

그렇다면, 조주가 노파를 감파했다(趙州勘婆子)고 하는데, 자, 말해보라! 감파한 것인가, 감파하지 못한 것인가? 자, 말해보라! 설봉이 그의 말에 답을 한 것인가, 답을 하지 못한 것인가? 진여 철(真如喆, 대위모철)이 조주의 감파자화(趙州勘婆子話)를 염해서 말했다.

"천하의 납승들은 단지 길을 물을 줄만 알았고 노파는 다리 밑에 진흙이 깊은 줄은 알지 못했다. 만약 조주 노인네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공고한마(功高汗馬, 땀 흘린 말의 공이 높음=큰 공을 세움)를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㉖ 이해의 길 6

연기적 사유, 인류 미래 대안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100층이나 되는 거대한 불교 건물도 마찬가지다. 이 붓다빌딩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깨침' 과 '자비' 가 바로 그것이다. 깨침은 중생 싯다르타를 붓다로 이끈 종교적 체험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불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다.

그렇다면 싯다르타는 무엇을 깨쳐서 붓다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을까? 바로 연기(緣起)의 진리다. 연기란 빠알리어로 '말미암아(緣)' 라는 의미의 '빠띳짜(paticca)' 와 '일어난다(起)' 는 의미를 가진 '사뭅빠다(samuppada)' 가 결합된 합성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붓다는 이를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此起故彼起).' 라고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짧은 이 두 문장은 '연기의 공식' 이라 일컬어지는데, 여기에서 붓다가 통찰한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앞에 나온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는 구절은 세계를 공간적으로 관찰한 부분이다. 오래 전 벗의 딸기농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알고 보니 수정을 위해 벌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그때 비로소 벌이 없으면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벌과 딸기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기적 관계라는 것, 이것이 곧 붓다가 통찰한 존재의 참 모습이었다.

붓다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볏단에 비유한 적이 있다. 볏단은 서로 마주 세워놓아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볏단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볏단도 쓰러지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한다면 이것과 저것(彼此)은 서로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몸(同體)이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자비(慈悲)가 나오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인 '이것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는 구절은 연기의 시간적 관찰이다.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많은 불자들이 애독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한 장의 종이는 태양과 먹구름 등 수많은 인연들이 시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적절한 양의 햇빛과 비 등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그 원목으로 종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장의 신문 속에는 기사나 광고뿐만 아니라 태양과 비, 먹구름 등 수많은 인연이 함께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나무를 베는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어깨에 맺힌 땀방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붓다가 성찰한 연기의 의미였다.

이처럼 연기의 진리는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 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인간과 자연, 남과 북, 동과 서는 한 몸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慈) 슬플 때 함께 슬퍼할(悲)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동체자비다. 이와는 달리 모든 것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느끼면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을 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환경을 함부로 대하고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를 '또 다른 자연', 즉 인간이 입고 있는 것이다. 핵전쟁의 공포나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을 둘로 보는 이원적 세계관에서 나온 필연적 산물이다. 붓다가 깨친 연기적 사유는 오늘의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응답하라1988' 에 나온 대사다. 사랑은 왜 넉넉함이 아니라 절실함일까? 바로 그 대상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연기, 동체자비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올리는 글

소승은 경기도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이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시게 되어 1988년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은 불연으로 사리탑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신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 바로 봉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신사리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인사하고 들어가셔야 하신다며 전국 사찰로 파발을 보내면 참다운 당신의 제자들이 인사하러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제자들을 다 만나면 알려줄 터이니 그때 봉안하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아 소승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어 일단 지면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제자이신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진신사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적멸보궁 오봉사 | 주 지 군맹서진 합장

진신사리친견 안내

개별친견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7월은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에서 오전 8시 버스출발 (왕복 2만원)
- 친견 예약은 02-532-0012(강남불교대학) 또는 홈페이지(http://gangnambu.org)에서 3일전까지 예약 바라며 예약하지 않거나 10시 이후에 오시면 친견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친견
- 30명 이상의 단체친견일 경우,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Tel. 02-532-0012 강남불교대학

오봉사 진신사리의 유래는 유튜브채널 강남불교대학에서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 '산사' 가치 · 위상 조명하다

안동 봉정사 · 공주 마곡사 등재 기념 학술대회 잇달아

봉정사 · 유림 교류 양상 분석
조선 儒者들 독서공간 각광
'천등' 중심 스토리텔링 필요
능인대사 천등굴 보존 시급해

조선 궁궐서 사용한 '청기와'
마곡사도 확인돼 관계 주목
후사 기원 정조와 인연 추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기념하며 각각 산사들의 위상과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한 산사인 안동 천등산 봉정사와 공주 태화산 마곡사의 전경.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 1주년을 기념해 각각 산사들의 위상과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조계종 천등산 봉정사(주지 도륜)는 7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봉정사의 가치와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교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안동과 봉정사의 관계를 살피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황만기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봉정사 관련 시문에 나타난 선비들의 교류 양상'을 통해 조선시대 유림(儒林)이 봉정사를 통해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를 살폈다.

황만기 교수에 따르면 봉정사와 관련 깊은 조선 유학자는 단연 퇴계 이황(1501~1570)이다. 퇴계는 16세(1516)에 숙부 송재 이우의 권유로 봉정사에서 독서를 한다. 1515년 송재는 안동부사로 부임했고 자신의 아들 이수령과 조카 퇴계를 위해 1516년 가을 독서 공간인 애련정(愛蓮亭)을 건립했다. 퇴계는 1516년 봄부터 가을까지 봉정사에서 독서를 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이후 퇴계는 50년 뒤인 1566년에 다시 봉정사를 찾게 된다. 그는 그해 1월 조정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가던 중 병환으로 사직소를 올린다. 하지만 윤허되지 않자 광흥사, 봉정사 등으로 처소를 옮기며 소를 계속 올리게 된다. 퇴계는 봉정사에 머물며 제자 금계 황준량의 문집 〈금계집〉을 교정했고, 남쪽 골짜기의 낙수대를 명옥대로 개칭했다.

퇴계는 봉정사를 독서의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그의 사후에는 퇴계를 기르는 기념공간이 된다. 실제, 약포 정탁 · 송암 권호문 등 많은 유학자들이 봉정사에 들러 퇴계가 읊은 봉정사 서루 시에 차운하거나 명옥대 시에 차운하면서 퇴계를 추념했다.

황만기 교수는 "이때부터 봉정사는 불교 문화가 유교 문화로 변질되는 양상을 띠었다"면서 "이동표와 정필달은 퇴계를 봉황으로 비유해 퇴계가 이곳에 머물러 봉정사가 됐다고 하며 봉정사를 불교 공간이 아닌 유교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 인근에는 맹사성이 공부하던 개목사, 퇴계 부친과 숙부가 독서하던 용수사 등 사찰 외에 유교 공간으로서 함축성이 강한 사찰이 여럿"이라며 "이들 사찰에 대한 연구를 확대한다면 불교 공간 속에 내재된 유교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호림 안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봉정사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봉정사 창건 설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그는 봉정사의 창건설화가 '천등'과 '봉황'의 두 층위로 나뉘며, 새로운 담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천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을 제언했다.

신호림 교수는 "'천등'은 봉정사를 창건한 능인대사의 깨달음을 의미하며 그 깨달음을 얻은 공간인 천등굴은 봉정사의 기원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며 "기원에 대한 기억은 봉정사의 신성성을 담보하며 그곳에서 내려온 천등에 주목했을 때 그 빛을 품어주는 봉황의 이미지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주 태화산 마곡사(주지 원경)는 7월 10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선왕실과 마곡사의 관계를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은 '마곡사의 가람배치와 조선 국왕과의 관련성 검토'를 통해 마곡사 대광보전 청기와와 조선 궁궐의 관계를 조명했다.

조원창 원장은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경복궁, 창덕궁, 원각사 법당 등 소수의 유적지에서만 청기와가 검출됐다"면서 "궁궐의 경우도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전과 편전에서만 청기와가 확인됐다. 청기와의 장식 · 장엄성 이외에도 권위의 상징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와에 사용된 청색안료는 중국에서 수입했을 정도로 귀했고, 이런 이유로 청기와를 사용한 사찰은 충남에서 마곡사, 갑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럼에도 마곡사 대광보전 용마루에 청기와가 사용됐다는 것은 마곡사와 조선왕실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단초라는 게 조원창 원장의 주장이다. 또한 마곡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일월오악도'의 존재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조원창 원장은 "조선시대 궁궐이나 왕의 야외행차 때 설치하는 상징물인 일월오악도는 청기와와 더불어 마곡사와 국왕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원창 원장은 마곡사와 관계된 국왕은 정조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그는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농산 · 체규 · 계일 등이 천일기도를 통해 순조 탄생을 기원한 것과 연관된다"면서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에도 '국가를 위해 바친 정성이 극진해 국가에서 보답이 내려졌다'는 구절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원효 '화쟁사상' 종합적 고찰 담다

주목! 학술서 – 김영일의 〈화쟁사상〉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사상(和諍思想)'은 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정작 '화쟁'이 어떤 구조로 이뤄졌으며,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일 동국대 연구교수가 발간한 〈화쟁사상〉은 원효 스님의 화쟁에 대한 종합설명서에 가깝다.

저자인 김영일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도 '원효와 지눌의 돈점관', '도신과 원효의 수행관' 등 꾸준히 원효를 탐구해온 논문들을 발표해 오고 있다.

원효는 화쟁사상에 대한 종합적 저술인 〈십문화쟁론〉을 총10장으로 구성했는데, 이를 오마주하듯 저자 역시 이 책을 총10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1장은 이 책을 소개하는 '서론'에 해당하고, 제2장부터는 화쟁사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화쟁총론'에 해당하며, 제6장부터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화쟁하는 '화쟁각론'으로 볼 수 있다.

'제1장 화쟁론 서설'에서는, 선행연구부터 책에 대한 내용을 친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본문이 어려운 독자들은 서설을 먼저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2장 화쟁의 모습'에서는, 원효가 화쟁한 모습을 화쟁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3장 화쟁의 방법'에서는, 화쟁사례의 내용을 분석해서, 원효가 화쟁한 방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제4장 화쟁의 논거'에서는 화쟁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원효가 화쟁에 사용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제5장 화쟁의 연원'에서는 원효가 제설을 화쟁하는데 바탕이 되었던 사상적인 근거를 탐구하고 있다.



각론에 해당하는 '제6장 공유화쟁론'에서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 '이 세상의 참모습은 공(空)인가, 유(有)인가'라는 주제로 논쟁한 것을 다루며, '제7장 불성화쟁론'에서는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의 중생인가, 모든 중생인가?'에 대해서 논쟁한 것을 분석한다.

'제8장 불신화쟁론'은 불신(佛身)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논쟁을 분석하며 '제9장 정토화쟁론'에서는 미타정토경전이나 미륵정토경전에 담긴 논쟁을 다루고 있다.

'제10장 종교화쟁론'에서는 종교간 논쟁에 대해 분석한다. 원효의 종교화쟁론에 대해 저자는 "종교포괄주의적 아이디어와 종교다원주의적 아이디어가 '동시에' 성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쟁을 총론 · 각론적으로 분석한 저자는 화쟁사상이 현대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김영일 교수는 "130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설한 원효 성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면서 "원효 성사의 화쟁사상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전체와 부분이 진정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通通' 튀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

중고생 · 대학생 대상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

다양한 문화유산 가치를 담아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에서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월 16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우리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자유형식의 영상으로 담은 참신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중고등학생과 만 13세~19세의 청소년(개인, 단체 또는 지도교사를 포함한 동아리), 대학생(개인, 단체 또는 동아리)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상은 캠코더,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영상매체로 창작한 다큐멘터리 · 만화 · 드라마 · 광고 · 영화 등을 자유 형식으로 제작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EBS) · CJ ENM · 아리랑TV · 국악방송, 방송대학TV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시상을 비롯한 온라인 홍보 등을 후원한다. 특히 국악방송은 한국전통음악 음원을 무료로 제공해 참가자들이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원은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서 무료로 제공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중 · 고등부와 대학생부로 나누어 문화재청장상, 재단이사장상, 후원사 사장상, 우수지도자상 등 총 39편(총 상금 880만원)을 선정하여 오는 10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달라이라마 생일 기념행사 불허

네팔정부 통보, 배후로 중국의 압박 제기돼

박영빈 객원기자

14대 달라이라마의 생일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봉행됐지만 정작 네팔에서의 기념행사가 정부의 불허로 봉행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중국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7월 8일 '로이터 통신' 'AFP통신' '티베탄리뷰' 등의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14대 달라이라마의 84세 생일(7월 6일)일 맞아, 전 세계의 망명 티베트인들과 티베트 불교도들이 일제히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국내에서는 티베트 하우스 코리아(서울)과 티베트 불교사원 광성사(부산) 등 티베트 불교단체 등이 기념법회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점유 하에 있는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비공식적인 기념법회가 곳곳에서 봉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인도 다음으로 많은 망명 티베트인들이 거주하는 네팔에서의 기념행사는 네팔 정부의 불허로 중지됐다. 네팔에는 약 2만 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정부는 불교성지로 유명한 보우더나트 대탑과 카트만두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달라이라마 생일기념 행사를 모두 불허하면서 "보안과 안전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달라이라마의 생일을 기념하는 공공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카트만두지구 행정보좌관인 크리쉬나 바하두르 카트왈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진 모르지만 부적절한 활동이나 분신자살의 가능성이 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명을 요구받은 카트만두시의 행사개최 담당부서는 "우리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지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티베트 자치구 비롯해 국내 등
7월 6일 곳곳 기념식 열렸지만
불교성지 카트만두 등 네팔은
'시민안전' 이유로 일방적 불허

네팔 內 중국영향 점차 거세져
反티베트, 親중국 성향 드러나



달라이라마의 생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위해 모인 티베트인들을 네팔경찰이 막는 모습. 사진출처=티베탄리뷰

익명을 요구한 네팔 외무부 관계자는 "주네팔 중국대사관 측에서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기념행사를 불허할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네팔 내무부까지 전달됐다"며 배후의 중국의 압박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몇몇 영미권 외교관들은 "이러한 조치는 망명 티베트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네팔 공산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2008년 이후부터 네팔 내의 달라이라마 관련 행사들이 다수 중지된 바 있다. 2017년 5월엔 네팔정부가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제권 구상계획인 일대일로 계획에 네팔이 합의하면서 네팔 내에서 반티베트, 친 중국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티베트인의 네팔 입국을 불허하거나, 달라이라마에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시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생일을 맞은 달라이라마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친구 분들이 생일축하의 뜻을 전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살든지 3가지를 기억해 달라. 자비심을 가지고, 종교적으로도 화합하며, 인도의 날란다에서 전해오는 논리의 전통을 널리 말해주시길 바란다. 이것이 나에겐 최고의 생일선물"이라고 밝혔다.

150년 만의 귀향, 돌아온 청동 등롱

日 혼란기 유출 추정, 3년 전 우연히 발견

일본의 한 사찰에서 150년 전 행방불명된 청동 등롱(燈籠)이 돌아와 다시 불전을 밝히게 됐다. 7월 12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 '시즈오카 신문' 등은 다시 돌아온 등롱의 미담을 보도했다.

약 150년 전, 일본의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당연시됐던 '신불습합(神佛習合)'을 정책적으로 분리했다. 이에 일본 전국적으로 불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 졌고, 많은 사찰들이 폐사되거나 성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해외 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일본의 국보급 불상들은 대부분 이때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반환된 한 쌍의 청동등롱은 높이 70㎝, 투각으로 만들어진 몸체에 여의주 장식의 지붕을 얹고 있으며, 크게 훼손된 부분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등롱을 발견한 시바타 코스케 씨는 "3년 전 집을 이사하면서 다락방에서 등롱을 발견했다"며 "등롱이 어떻게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등롱을 자신의 재적사찰인 타이조인(泰藏院) 기증했으나 등롱의 받침대에 남아있는 명문으로 원래의 소재지가 밝혀졌다.

등롱의 원 소재지는 나라현 도츠카와무라(十津川村)에 소재했던 사찰 코묘지(光明寺). 등롱의 명문엔 코묘지의 신도들이 1845년에 공양 올렸다는 명문이 남아있다. 도츠카와무라에는 원래 54곳의 사찰이 소재했으나 폐불훼석으로 모두 폐사, 철거됐다. 코묘지도 이때 철거됐으나 불상들은 화를 면해 해당 지역의 작은 불당에 아직까지 모셔져 있다.

시바타 씨는 우연히 코묘지의 불상들이 아직까지 모셔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찰측과 협의 끝에 등롱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11일 타이조인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시바타 씨는 "원래의 장소에서 먼 북쪽까지 등롱이 흘러 온 것은 폐불훼석의 영향이 틀림없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반환 소감을 밝혔다.

등롱을 전달받은 도츠카와무라 종대표 오나카 오사무 씨는 "사라진 줄 알았던 등을 무사히 돌려받아 꿈만 같다. 따뜻한 마음에 마을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등이 켜진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가사 변신은 무죄 '플라스틱 재활용'

태국 스님들, 불교 환경 몸소 실천 사회적 '귀감'

지구 환경에 지대한 위협을 끼치는 일회용 플라스틱병. 이러한 플라스틱병을 가지고 가사(袈裟)를 지어 입는 태국의 스님들이 있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 7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방콕의 방 카차오(Bang Kachao) 섬에 위치한 왓 착 다엉(Wat Chak Daeng) 사원 스님들은 불교의 환경 의식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 가사'를 입는다.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은 태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육지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제적 문제다. 플라스틱은 차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환경 폐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태국 스님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왓 착 다엉(Wat Chak Daeng) 사원 스님들은 불교의 환경 의식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 가사'를 입는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스님들은 버려진 플라스틱병을 주워 모아 이를 압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가공공장으로 보내 옷감형태로 녹인다. 천으로 제작된 후에는 스님들 손에 다시 돌아와 마침내 가사로 제작된다. 현재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00여 벌의 가사를 제작했다고 한다.

해당 사원 소속의 티파콘(Thipakorn) 스님은 "걸치는 옷에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없다. 나 자신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사를 입고 있고, 이것은 전통 불교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가사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0~35% 플라스틱과 면 등이 필요하다. 1.5L 플라스틱 페트병 약 30개가 필요한 셈이다.

이는 플라스틱병을 옷감 형태로 변화시키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지역사회협회가 총괄하며 태국 내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스님들은 가사뿐만 아니라 사원에 필요한 가구도 플라스틱병의 병뚜껑 등을 재활용해 만들고 있다.

한편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태국은 중국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 · 스리랑카에 이어 연간 103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 중 3% 이상이 바다로 유입된다"는 니케이 아시안뷰 보도를 인용했다. 또 2017년 태국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8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데, 종합하면 연간 약 200억 개가 배출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건축전문잡지 디자인붐에 소개된 일본 후슈인 사원의 건축 디자인. 사진출처=디자인붐

日 사원 디자인 '보리수나무 연상'

후슈인 사원, 현대적 감각에 건축잡지도 호평

일본 도쿄 외곽 도시에 위치한 한 관음사원이 건축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사원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 때문이다. 건축 전문잡지 디자인붐(Designboom)은 7월 12일 후슈인 사원(houshouin temple)을 소개하며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린 일본 불교 사원이 현대적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사원은 관음상과 불단의 모습은 고스란히 유지하되 천고, 입구, 홀 등은 완전히 탈바꿈했다. 현대인들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킨 것. 특히 전통 사원처럼 기둥이 건축물의 중간중간 배치되지 않고, 높은 천고를 받치는 형태로 건축됐다. 이러한 지붕 형태가 마치 "부처님이 수행하던 보리수 나무 아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디자인붐의 설명이다.

디자인붐은 "해당 사원은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원 건축 양식에 새 바람을 불어올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수행 순례길 넘어 보리도량 이르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㉕ 40번 사찰로 가는 길



마츠오 도게 순례길 옆에 세워진 순례자의 무덤. 약 300년 전의 무덤이다.



마츠오 도게 정상 경계석비. 여기서부터 에히메현이다.

엔코지서 인연된 홋카이도 콤비
함께 마츠오 도게를 넘는 고행
꼭대기에 자리한 대사당서 예불
고개 넘으니 '보리도량' 에히메현
오늘도 걸으며 내 수행 점검한다

노숙을 하는 날은 으레 새벽 한기에 등이 시려 눈을 뜨게 된다. 아직 가시지 않은 졸음을 붙잡고 침낭 속에서 꾸물대다 부스스 일어난다. 잠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니 어제의 작은 순례자 마을이 아직 건재하다. 알 수 없는 고양감에 허허 웃고 있으니 여기저기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난다. 마을이 깨어난다.

순례자들이 노숙한 휴게소 주변으로는 고요한 새벽이다. 하나 둘 일어난 순례자들이 텐트를 접거나, 배낭을 싸는 등 서로 분주하다. 어제 인사를 나눈 순례자들끼리 어디로 향할지를 묻는다. 어젯밤 소시지를 나눠 먹었던 순례자가 말을 걸어온다.

"좋은 아침! 박 상은 오늘 어디로 가는가?"

"오늘 중으로 40번 사찰을 참배하려 합니다. 옛 순례길을 따라 고개를 넘을 겁니다."

"그래? 나랑은 다른 루트로 가는군요? 난 국도를 타고 우회합니다."

몇몇은 국도로 우회하고, 몇몇은 이제야 39번을 향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고개길을 넘는 건 나와 홋카이도 콤비 뿐 이었다.

"앗! 박 상도 고갯길인거야?"

"코에이씨도? 오늘도 하루 종일 말하겠네요."

"왜 그래. 여행은 길동무라잖아?"

"아이고 부처님!"

배낭을 모두 싸고, 어젯밤 잠들었던 벤치에 앉아 아침으로 미숫가루를 풀어먹는다. 홋카이도 콤비는 텐트를 치고 다니기에 정리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한 사람은 텐트, 한 사람은 식량과 기타용품으로 짐을 나누어 들고 다녔다.

다들 잠자리를 정리하고선 아침을 먹는 모습이다. 모두 다른 출발시간, 다른 루트로 저마다의 순례를 오늘도 시작한다. 39번 엔코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나서 나도 일어선다. 아직 밤의 시원함이 남아있는 아침 7시, 떠오르는 아침해의 열기를 등에 짊어 매고서 나아간다.

마츠오 도게(松尾峠) 고개를 넘는 순례길은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온 옛 순례길이다. 거기에 예로부터 공식 교통로로 쓰인 가도(街道)였기에 고갯길임에도 돌로 포장이 되어 있다. 잠깐 국도를 따라 걷다가, 옆으로 빠져나와 3km가량 마을길을 걸어 고갯길 입구에 들어선다. 입구에는 예로부터의 순례길이자 가도였다는 설명 표지판이 덩그러니 서있다.

고갯마루까지 거리로는 1km를 조금 넘는 짧은 구간이지만, 워낙 가파른데다가, 옛날의 돌 포장이 좁고 미끄러워 걷기가 힘들다.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땅만 보며 걷는다. 결국 코에이씨가 한마디 한다.

"아니. 명색이 가도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길을 닦은 거야?"

"아까 표지판 보니 이 길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외침을 막으려고 이리 했답니다."

"우리가 시코쿠를 정복하러 왔나? 부처님 보러 왔지. 순례자를 괴롭히다니 무슨 악업이야!"

편하게 갈 수 있는 국도가 있지만, 이렇게 험한 고갯길을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고갯길이 전통적으로 수행의 도량인 고치현과 보리(菩提)의 도량인 에히메현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1시간 남짓 고생 끝에 오른 마츠오 도게. 스쿠모시를 바라보며 탁트인 고갯마루에는 작은 대사당이 있었다. 앞의 설명문에는 에도시대에 세워진 대사당이 소실됐고, 후에 지역민들이 역사를 잇는 마음에서 작게 재건했다고 쓰여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코보 대사상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모셔져 있었다.

모두 배낭을 내려놓고선 합장을 하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개경계(開經偈)부터 읊었다. 반야심경으로 예불을 모시고 회향문까지 모두 마치자 서로 마주보고 합장 반배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코쿠 순례를 한지 한 달 가까이 다 되어 가니, 다들 예불이 몸에 익은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걸 보곤 서로 너털웃음을 짓는다.

"박 상 어느 일본 사찰에서 배웠어요? 독경 잘합니다."

"아이고, 문 앞의 동자승이라잖아요!"

"문 앞의 동자? 이참에 확 일본에서 출가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 한다. 일본에선 같은 의미의 속담이 '절 문앞 동자승, 안 배운 경을 읊는다' 이다. 대사당의 문을 다시 닫아두고선, 고개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땀을 식힌다. 어깨를 풀며 서성이니 대사당 조금 아래에 사람 키만 한 석비가 하나 서있다.

"이곳에서부터 서쪽은 이요국(伊豫國), 우와지마(宇和島)번의 지배지."

드디어 시코쿠 순례의 세 번째 현, 보리의 도량 에히메(愛媛)현에 들어선 것이다. 길고도 길었던 고치현이 여기서 끝났다. 뭔가 머쓱해져서 석비를 한참이고 바라봤다. 과연 내가 지금껏 걸어온 순례길과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준 모든 분들에 대해 과연 내 수행은 충분했을까? 과연 보리의 도량으로 들어서기에 알맞을까? 답을 알 순 없지만, 그래도 나아갈 수 밖에.

고개를 내려가기 전 오늘은 어디까지 갈 것 인지 다 같이 상의했다. 40번 사찰 간지자이지(觀自在寺)까지는 약 14km. 3~4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하루를 마치기엔 조금 짧다. 그렇다고 더 나아가자니 숙박할 장소가 애매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걷는 속도를 늦춰 40번 간지자이지에서 하루를 마무리 하고, 그곳의 츠야도에서 묵기로 한다.

올라온 길에 비해서 내려가는 길은 수월했다. 길도 조금 넓게 닦여 있었고, 경사도 그리 급하지 않아 금방 내려 갈 수 있었다. 산길을 벗어나 차도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순례길을 따라 멀리 흰 깃발이 펄럭이는 건물이 보였다. 일반 상점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가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었다.

"순례자 분들! 여기에요! 여기로 오세요!"

그리곤 건물을 향해서 "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무슨 일인가 하고 서둘러 가보니 순례자들에게 보시를 하는 '셋타이쇼(接待所)' 가 세워져 있다. 하얀 깃발들 마다 '순례자 접대소' · '나무대사변조금강' 이라고 적혀 있다. 배낭을 내리고 앉으니 곧바로 시원한 보리차가 나왔다.

"순례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이 오셋타이 하는 마지막 날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차를 내온 할머니는 지역 부인회에서 매년 2차례 봄 · 가을에 셋타이쇼를 개장한다고 소개했다. 잠시 뒤 한사람씩 작은 접시에 주먹밥과 반찬 몇 가지로 요깃거리가 나왔다. 할머니들이 주먹밥은 얼마든지 있으니 넉넉히 먹고 가라며 권했다.

"세 명 모두 고개를 넘어오셨나 보네요. 일행인가요?"

"아니요, 엔코지에서 길동무가 됐습니다. 오늘은 40번 간지자이지까지 갑니다."

"오늘은 멀리까지 안가시네요, 보통 이 시간대에 넘어오는 순례자들은 더 간다고 이야기해요"

"네, 어제 노숙을 한데다, 아침부터 산을 넘었더니 지쳐서요."

맛있게 아침 겸 점심을 받아먹는데 코에이 씨의 입담이 또 빠지질 않는다.

"오늘은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예쁜 누님들이 밥을 해주시고! 시집가셔도 좋겠습니다."

"아이고, 젊은 분이 농담은! 우리 영감이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시집이람."

"벌써 임자가 있으셔요? 아깝네요. 제가 30년만 늙었어도 모셔가려 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에 할머니들이 꼭 소녀같이 웃으시며 좋아하신다. 무슨 입담이 이리 좋나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 홋카이도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니 느는 게 어르신들과 노는 기술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저 멀리 다른 순례자들이 오는 게 보인다. 슬슬 자리를 비워드려야 할 거 같아서 짐을 메고 일어선다. 연신 고개를 숙여 후한 오셋타이에 예를 표하고 걸어간다. 40번까지는 13km 남짓. 이어지는 길은 큰 고개 없이 평탄한 길이니 4시간 정도 부지런히 걸으면 도착할 듯했다. 다만 너무 일찍 도착하면 츠야도에서 묵는 것이 거부될 수 있으니 오후 3시쯤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리를 일부러 질질 끈다.

보리의 도량이라는 에히메현. 시작부터 좋은 인연과 일들로 순례길이 열린다. 과연 시코쿠의 세 번째 도량에서 나는 어떤 보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인가 바라고 걷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바라며 오늘도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간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예쁜 누님' 들이 정성껏 만들어 주신 주먹밥.

– 국도를 타고 우회하는 길이 매우 잘 닦여 있어 최근 많은 순례자들이 국도를 선택한다.

– 마츠오 도게 위의 대사당에서도 2인 가량 노숙할 수 있다. 단 식수가 없으니 주의 할 것

– 40번 간지자이지는 츠야도와 슈쿠보 둘 다 운영하며, 슈쿠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7~7/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대사/윤현로	운주사	6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사찰의 비밀 (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앤북스
3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8	보살핌의 경제학	달라이 라마 외	나무의마음
4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5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당선작)	법보신문 편집부	모과나무	10	연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그림과 만나는 경전 말씀)	혜조스님/신창호	운주사

세상서 어려운 것은… "마음 길들이기"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

최훈동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5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경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노라면 가슴에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고치려 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따뜻한 관심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은 기꺼이 경청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비난을 퍼부어 댄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외면하고 덮어 두기 바쁘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상처를 위로하지 못하고 되레 상처를 후벼 파고 나쁜 기억을 곱씹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란 쉽지 않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이자 명상과 정신치료를 융합해 명상 치료의 저변을 넓혀가는 최훈동 서울의대 외래교수〈사진 위〉가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는 심리학과 명상에 정통한 저자가,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 통찰과 치유의 실마리를 찾게 돕는 심리 에세이다. 이 책은 우리 안에 내재된 자비와 지혜의 품성을 깨우는 길을 안내한다.

1부에서는 마음과 에고의 작동 방식을 명상과 정신치료를 통해 살펴보고, 명상의 요결을 안내한다. 이어 2부에서는 살면서 직면하는 고통에 대해 명상적 성찰을 통해 마음 작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또한 3부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살펴보며, 4부에서는 마침내 에고(가짜 나)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나로 사는 삶을 다루었다. 명상 안내음성을 따라 스마트 폰을 통해 쉽게 명상을 체험케 했으며, 숙고명상 노트를 마련해 명상 중 느낀 감정을 기록해 감정을 잘 갈무리하게 도운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우리는 삶의 역경과 부정적인 생각을 회피하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쓴다. 하지만 생각은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 저자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감정을 손님처럼 친절히 대하고, 감정과 연관된 사건서 받은 상처를 안아 주라고 책 속에서 조언한다. 그 과정서 필요한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숙고명상'이다. 이 명상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아무리 찾아와도 자애와 연민을 갖고 자신을 대할 수 있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 명상 접목한 정신치료 연구 전념
"내 안 이야기 들으면 치유 에너지 흘러"
스마트 폰 명상 체험, 숙고명상 노트도

저자는 책 속에서 말한다. "생각과 감정을 맞이하되 손님처럼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건, 자연스럽게 지켜보세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걸 인위적으로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애씀은 번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끌어당기지도, 밀쳐내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이러한 노력은 에고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명상은 분노나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놔두고 바라보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생각과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음을 보세요.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바라보세요."라고.

저자는 또한 고통을 없애려 애쓰고 저항하는 대신 시련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일을 중지하면, 삶에 느긋해지며 삶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다.

"희로애락 그 자체가 더 이상 나의 평화를 해치지 않습니다. 깊은 두려움일수록,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두려움은 겁내고 도망가면 더욱 힘이 세져서 호랑이처럼 덮칩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친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어 "삶의 파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대신 "파도를 원망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그간 꼭 지니던 불안과 두려움이란 렌즈를 빼 버리고, 호기심과 자애로 자신의 삶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자. 파도를 타듯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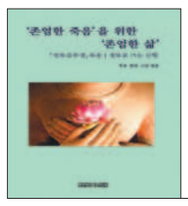
권준수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우울, 절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명상의 힘"이라며 "이 책은 저자의 오랜 경험서 나온, 명상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복잡하게만 생각된 명상을 친근하게 다가오게 한다. 책에는 명상에 대해 쉽게 기술돼 있어, 마음이 아픈 사람은 물론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말처럼 명상이 뜬구름 같은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의심의 안개를 걷어 줄 것이다. 또한 현대 정신치료가 어떻게 명상과 연결되는지, 명상이 고통의 본질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알고 싶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최훈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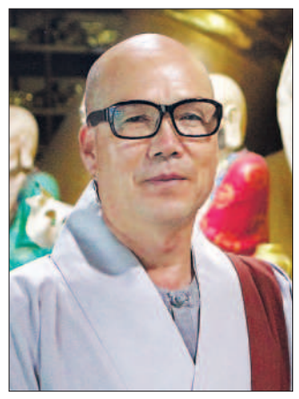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서 수련한 후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 고시위원과 서울 가정법원 상담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초빙교수, 이화여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별정신병원 병원장, 한별심리분석연구소장, 한국 명상-영성치료학회 부회장이다. 저서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논문으로는 〈불교의 유식사상과 심층심리학의 비교 시론〉 〈무아사상의 정신치료적 의미〉 등이 있다.

정토 수행으로 행복한 죽음과 삶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존엄한 삶

무유 스님 지음/ 한영출판사 펴냄/1만7천원



고통 받는 환자 보며 죽음 고찰
아미타 극락정토 신심으로 극복
정토 수행과 염불 등 총 6장 구성
"죽음에 대한 바른 통찰이 필요해"

부산 기장 금산사 주지 무유 스님〈사진 오른쪽〉은 1980년 대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선방서 공부 하다 신문에서 우연히 관해사 소식을 보게 됐다. 결핵환자들을 위한 절, 관해사서 스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은 지체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상인들의 오해 속에서도 무유 스님은 돼지머리를 사기 위해 직접 시장을 찾았을 정도로 결핵환자들을 돌보았다. 이후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위해 일했으며 나환자촌서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 그런 과정에서 무유 스님은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생로병사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을 만나며 떠올린 것은 오직 부처님 말씀을 인용한 위로뿐이었다.

삶속에서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유 스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존엄한 삶'을 주장했다. 결핵환자와 나병 환자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스님은 죽음을 고찰하는 지혜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으라 재차 강조했다.

오랜 봉사와 전법 활동을 이어 온 무유 스님이 그간의 경험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정리한 책 〈존엄한 죽음을 위한 존엄한 삶〉을 펴냈다. 오직 정토로 가는 신행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존엄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다. 책은 총 6장으로 〈정토 삼부경〉과 염불 수행에 대한 설명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은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서방정토에 대한 법문을 망라한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을 실었으며, 경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 하단에 불교 주요 교리와 용어를 덧붙였다. 2장은 '정토에 대한 열 가지 문답'으로 알려진 〈정토십의론〉이 담겨있다. 이는 중국 천태종 개조인 지지대사의 대표적 논서로 정토와 염불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으며 의심을 끊게 하고 신심을 일깨우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3장에는 염불수행과 공덕을 설명한 선사들의 법문이, 4장에는 죽음 앞에서 삶의 본질을 깨달아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발원한 선사들의 문헌과 백발가(白髮歌), 몽환가(夢幻歌), 왕생가(往生歌) 등 불교 가사들을 모았다. 6장에서는 불자들이 임종을 맞을 때 준비해야 할 임종법을 소개했으며, 임종염불, 극락왕생을 돕는 조념염불,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성찰하기 위한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실었다.

무유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이 장엄한 극락정토는 죽음을 맞이한 중생들에게 현세에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극락세계에 태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을 부여 한다"며 "극락왕생은 아미타부처님이 서원한 동체대비의 사십팔대원이 중생에게 회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각성한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존엄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바른 통찰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 **무유 스님**은?

1977년 지리산 청송사서 출가해 1983년 비구계를 받고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국립 결핵요양원 내 관해사와 정신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원 및 나환자촌에서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복지원 나눔에 적극 후원 동참중이며,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금산사는 세계최대 木 와불 몸속 법당이 있는 사찰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알기쉽게 풀어놓은 불교고전〉 〈불교상식백과〉 등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우리몸 막힌곳을 뻥! 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2회 공복
혈통
맑은 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건강을 통! 하게 합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 042)535-1234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도재, 악보있는 현대음악으로 재탄생



해인사, 천도재 음악 '왕생가'
악보집 · 음반 출간 발매
수설대회소 노래 등 11곡 수록
향적 스님 · 김형미 시인 등 가사
동민호 · 최인영 등 작곡
천도재의 현대화 · 대중화 실현
쉬운 가사 현대음악의 천도재


해인사가 천도재 전체를 악보화한 악보집 '왕생가'를 발간했다. 사진은 해인사 화엄21 천도법회 모습.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어찌하면 밝힐까 삶과 죽음의 어두운 굴레. 부처님의 지혜등불 의지해야 밝히리. 어찌하면 건널까. 파도 높은 고통의 바다. 가르침의 배를 의지해야 건너리~♫"

천도재가 현대음악으로 재탄생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천도재 전체를 현대음악화한 악보집 '왕생가'를 발간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불교의 천도재 전체를 정형화된 악보로 만들어 음악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염불을 통해 생전의 업장과 죄업을 소멸시키고 육체와 정신적 집착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발원한다. 여기서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 명호를 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 선사들의 게송을 음률화하고 목탁과 요령 또는 징과 북 등을 동원하여 독송하는 것이다. 의식이 시작되면 죽은 이의 일가가 모인 가운데 법사가 죽은 이를 위해 염불을 독송한다. 하지만 의식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불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두 시간 이상을 듣고만 있어야 한다.

모든 천도재는 해당 영가만이 아니라 천도되지 못한 채 떠도는 일체고혼과 지옥중생을 함께 청하여 구제하는 공덕을 지닌다. 천도재는 개별 영가들의 천도를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모래알 같이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외로운 심성을 위로하는 데도 유용하며, 더욱이 현대인들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도 유용하다. 단지 의식 전체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며 염불이 어려운 한문으로 이루어져 긴 시간을 함께하는 일이 다소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천도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법주와 재주가 서로 공감하며 동참하는 현대화된 천도재를 실현하여 천도재를 대중화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천도재 음악 '왕생가'는 고전적인 오케스트라 음악과 독창 및 합창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악기와 목탁, 요령, 경쇠 등의 법구 소리와 접목하여 만들어졌다. 전자음악적 요소도 다소 포함되어 엄밀히 말하면 퓨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적 스님을 비롯하여 도정 · 동명 · 의정 스님과 김형미 시인이 가사를 썼고, 동민호 · 최인영 · 김강곤 · 이용재 · 유태진 작곡가가 작곡에 참여했다.

악보집과 함께 음반도 제작됐는데, 독창에는 바리톤 김기환, 국악가 서동률이 참여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왕생가 합창단이 합창에 참여했다.

'왕생가'에는 천도재 의식 순서에 맞춰 11곡의 악보가 실려 있다.

△수설대회소 노래는 천도법회를 열게 된 인연을 부처님과 염라전에 고하는 수설대회소 의식에 쓰이는 노래다. △고혼청 노래는 죽은 이를 불러내는 노래다. △관욕과 착의 노래는 영가를 모셔다 목욕시키기고 새 옷을 입히는 '관욕과 착의' 의식 때 쓰인다. 이때 재주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주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재를 지내는 가족을 축원한다. △착어 노래는 천도재에서 모든 법문의 요체를 함축적으로 영가에게 설하는 의식으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생사는 또한 무엇이던가'의 의문과 해답이 노래의 중심을 이룬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노래는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부처님의 모든 공덕과 지혜가 담긴 비밀 주문이라서 총지라고도 한다. 조금 빠른 템포로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노래로 진행된다. 남성과 여성 합창이 번갈아 이어지며 역동적이고 흥겹고 웅장하다. △잔칫상의 노래는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고 잔치를 벌이는 노래다. 공양은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고 자비 실천을 생각하는 의식이다. 북, 꽹과리, 징, 장구 등 사물로 흥을 돋우고 관현악 음악을 더하여 장엄하면서도 흥겹고 격조있다. △보공양진언의 노래는 영가가 받은 공양을 두루 회향하도록 이끄는 의식이며 주문이다. △장엄염불 노래는 서방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찬탄하면서 반야용선을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염불이다. 천도재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전통의 구성진 염불조 노래다. △마지막 위로의 노래는 영가가 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노래다. 보통 이별의 말은 법주가 대신해서 염불로 하지만 영가도 이별사를 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노래다. △봉송의 노래는 재가 끝나고 위패를 사르며 영가를 극락세계로 보내는 의식이다. 마지막은 △종사영반의 노래는 덕 높은 스님이 열반했을 때 쓰이는 노래다. 헌향과 헌화를 할 때, 의식의 장엄함을 더하기 위한 배경음악으로 합창이 주를 이룬다.

해인사는 7월 15일 대적광전에서 왕생가 CD 및 악보집 봉정식 및 제작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천도재 음악 '왕생가' 보급에 나섰다.

여름휴가, 판화여행으로…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숲속 판화여행'
7월 27~28일, 8월 3~4일


'숲속판화여행' 외국인 참가자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8월 3일부터 4일까지, 두 차례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숲 속 판화여행'을 진행한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2019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산사와 박물관 판화가 결합된 문화형 템플스테이(박2일)다. 박물관 견학과 목판화 제작 체험, 판화를 이용한 전통 책 만들기, 아침산행, 명상체험 등 자연과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번 행사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지역명사에 위촉된 한선학 관장이 주관하며, 문화여행 이름도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숲속 판화여행'으로 브랜드화하여 처음으로 진행되는 여름문화여행 캠프다. 한 관장은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힐링하는 여름 템플스테이는 자신과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숲 속 판화여행을 모범적인 휴가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미리 보는 국립경주博 문화유산 사진전'

국립경주박물관 7월 19일~8월 19일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신경주역 로비 중앙홀에서 '미리 보는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유산 사진전'을 개최한다.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박물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사진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립경주박물관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박물관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관람객들의 자연스러운 관람 모습,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은 유물 등을 촬영한 사진 30여 점이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전시회를 통해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박물관뿐만 아니라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작은 음악회와 8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풍성한 문화행사가 준비 되어있다.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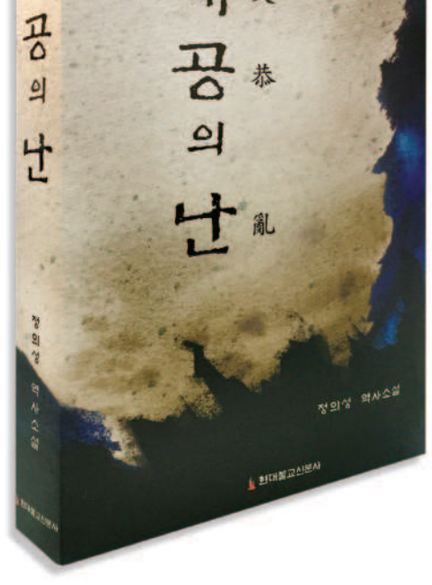

작품명 '석가탑'.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254호 | A17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대중불사 인연을 모십니다

-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804번지
- 토복건축허가 득하였으나 건축자금 8천만원이 부족하여 지면으로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천일종 청룡암 | 주지 도광
농협 351-0678-9831-53 한상오
010-2385-3789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특수한 비술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외제차·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 〈**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경남종무원 - 창원
010-9422-1233	010-4582-3366

사람을 찾습니다



- 정유년 3월 29일 생
- 손혜경(개명: 손유리)
- 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은 긴급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로 19 - 청학정사 스님
010-9421-077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지장성모암 마을 동참

지장성모암 마을 동참하실 분

- 20평 개인암자 건축비 3천-5천만원
- 지장보살어머니 •소불.대불.가족불
- 토속적인 시골마을처럼 설계함
- 대전지역불자 청계 오골계 초란 무료

우체국 300517-01-001518
조계종만불교종책원
043-744-9997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 성남
010-9157-2276

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

1.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2.개인 비영리 **법인 등록**
3.**종교법인 등록**

◆◆◆

010-9476-9001

부산 도심 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입니다.
전반적인 도량을
관리하여 주실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2168-280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구, 70대 이상
010-3524-8930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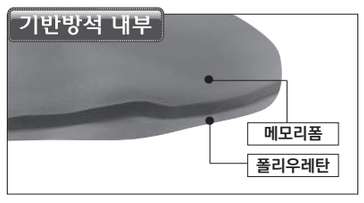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구입 문의 | 02-2004-8216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4호 | A18 | 전면광고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이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기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비유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4 수원빌딩 2층 은혜사
●총 평수 60평 ●최상의 위치. 북한산 입구
●전세 보증금 3억 / 시설비 1억 5천

연락처 010-5384-6063
신도회장 010-2763-2767

임야안내

●위치 :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임야 14,600평 정도
●가액 : 1억 1천만원
●사정 상 급매

010-8666-6210

사찰(급)안내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총면적 : 6,200평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3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신도시 개발로 4차선 도로 공사 중

010-9647-0723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위치 : 충남
◎ 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험 기도터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풍수명당 길지)
●석불 1억 5천만원 설치함
●가액 : 5억(대출 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계약 시 2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잔금 1억(3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010-9647-0723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가액 : 6억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대지 : 90평
●건평 : 1층 70평. 요사 2층 30평. 법당
●주차편리. 공기최상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수행관(기도처)안내

●위치 :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21
●아주 조용한 산사. 면소재지. 도보 가능함
●수행자(기도인) 딱 맞는 수행관 안내합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한옥독채가 있습니다.
●금액은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 · 월세 가능

010-5882-2452
010-5807-2452

사찰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26번지
●삼성아파트 후문/우방아파트/남양아파트 옆 도로 접
●재개발 지역. 전 162평. 옛날 단독주택 건물 약 80평. 단층 상가식. 전포 3칸
●창고 겸 생활하며 사주 철학 영업할 수 있음
●가액 : 7억 5천

주인직 010-8666-6210

전국사찰안내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토굴임대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남한강변)
●건물 : 약 50평(법당. 큰방. 거실. 중간방2. 주차공간 넓음)
●주변 환경이 매우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10-3188-0511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진전면 오서리
●법당 : 38평 ●요사 : 65평
●대지 : 1천평 ●임야 : 4천평
●가액 : 12억(대출 2억 5천)

010-4547-4990

포교당안내

●위치 : 경북 포항 냄구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다량주차 가능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 2811

일본포교당(급)안내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무속인, 신명제자,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포교원안내

●위치: 부산 구포1동 신협과 농협 중간. 도시농업지원센터 앞
●건물: 60평. 2층 단독 상가. 도심 속 청정기도 수행도량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소불 200불. 좌대법고
●방사: 친견실. 객실. 편백황토방. 냉온방 시설
●시설: 대형 주차시설 및 건물 내외 보안시설
●교통: 지하철/버스 3분. 열차 5분. 공항 10분 거리
●가액: 전세(보)2천 (월)30만-광열비 포함 (시)3청 8백-조정가능
●현 법회 중.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영상 확인 후 답사 010-4608-2568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대지 : 360평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가액 : 4억

010-4583-4895

포교원안내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사찰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지 : 355평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공양간, 방1개, 7평목조단청
●화장실(남,여), 목조단청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급)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서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20평
●건물 : 지하 1층 - 창고형 / 1층 - 공양간(큰방 2개, 대형주방, 화장실) 2층 - 방 3개. 화장실 /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옥상 : 소각장 설치. 다용도로 사용
●답사하실 분만 연락요망(사찰연력 40여년)
●가액 : 3억 3천 5백만원(인연있는 분 절충가능)

010-8360-8259

포교당안내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3층 건물 중 2층 전체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가액 : 보증금 1천 / 월 1백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로변(주차 무제한)
●건물 : 주택1층. 방2. 주방1. 화장실1. 창고3
●법당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종합탱화 모심
●보증금 5백만원 / 월세 33만원 / 시설비 3백만원
●몸만 오시면 됨. 건강 상 급매
●스님. 보살. 철학 적합

010-8835-1237

사찰안내

●위치 :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전망좋은 사찰
●대지 : 350평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가액 : 13억 5천만원
●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010-3269-1023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1길
●대지 137평. 건평 13평
●촌집. 스님 토굴로 쓰는 중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0-9471-0971

(급)사찰안내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사찰도량 총 1,45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종각, 공양간, 차실, 요사채
●방이 총 9개. 창고. 외부 화장실. 대형주차장 등
●가액 : 총 2억 5천만원

010-4628-5699

부산온천장사찰

●위치 : 온천장. 최중심지 4층 근린 빌딩
●대지 54평. 각층 30평. 전부 사찰 사용
●버스 1분. 지하철 5분. 금강공원 10분
●총 인테리어 1억 이상 들었음
●스님 혼자 운영하기 좋은 시설
●가액 : 총 7억 5천 급매
●주인 직거래

010-4583-0539

토굴안내

●위치 : 충남 청양군 공주, 부여 20분 거리(IC인접)
●대지 : 약 200평. 텃밭 있음
●건물 : 요사 약 20평 1개 법당(컨테이너)
●전세 : 2000만원

010-3977-2123

포교당안내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평수 : 약 3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독채 전세. 위치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사찰안내

●위치 : 합천군 면소재지 큰 도로 옆(위치 양호)
●몸만 오면 됨
●대지 : 123평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1동
●가격 : 2억 7천

010-6562-1577

◑ 입종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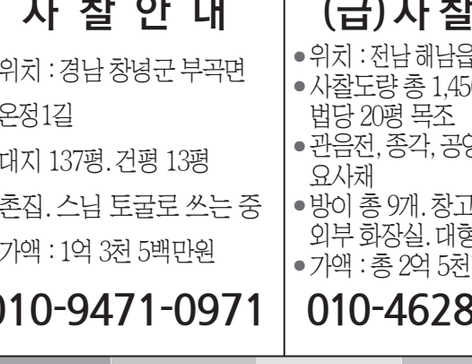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남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⑭ 내 안의 천사 · 악마 만나기



선한 의지를 찾아서

있기는 한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天使)는, 없다. 어릴 적 동화 속에서는 그렇게나 흔했던 천사가 어른이 돼가는 동안 씨가 마른 게 아닐까. 천사 이야기는 내 생애 속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되었다. 천사의 존재를 믿었던 시절, 나는 미확인 비행물체도 믿었었다. 언젠가는 천사도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천사는커녕, 천사를 믿었느니 마느니 하는 기억조차 희미해졌다. 이제 천사는 아파트 1004호 현관에나 붙어서 어릴 적 꿈을 싱거운 우스개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고 보니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나 싶다. 건조한 날에는 살갗에 희끄무레한 살비듬이 일어날 만큼 살았다. 살아온 만큼 상상이나 감성의 샘도 말라붙었다.

상상력은 감성의 습도에 비례하나보다. 삶의 곳곳에서 끈적거림이 사라져간다. 어느 날 통화하던 친구가 그랬다. "목소리 갈라진 것 같은데 컨디션 괜찮아?" 꽃밭을 보고도 무심히 지나치게 되고, 상가(喪家)에 가서도 친구 만난 기쁨에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오는 눈치 없음. 물난리 장면이 넘실대는 TV 화면 앞에서도 혀끝 한 번 차지 않고 멍하니 지켜보는 불감증. 아이쿠 이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뒤늦은 각성. 자기 연민.

정말 없었을까. 언젠가는 당신 주변 어딘가에도 흰 날개를 펼쳤을 하늘의 심부름꾼. 잘 더듬어보면, 아주 없진 않았다. 길에서 울고 있는 서너 살짜리 아이를 보고, 아이쿠 저걸 어떡하지?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흰 날개를 펼쳤던 것 같다. 아무 대책도, 그 꼬맹이를 도와줄 말 한마디 준비 못했지만 아무튼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접었다. '우리 꼬마 아저씨, 혼자 있구나. 엄마는 어디 갔어?' 두리번거리는 아이의 눈빛을 보아하니, 엄마는 멀리 간 것 같진 않다. 잠시 코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거나 약국에 갔으리라. 그렇지만 당신은 꼬맹이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선의의 날개가 이미 펼쳐져 있다.

살다보면 가끔 동화 속 천사가 내 안에서 날개 펼친 순간이 있다.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 돕고자 해서 도운 게 아닌, 그냥 본능적 날갯짓 같은 선의(善意)가 흰 우산살처럼 펼쳐질 때가 있다. 몸이 따르지 않더라도, 마음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 천사는 그렇게 당신 내면에 있다. 그러니 아직 시력도 체력도 지력도 갖추지 못한 어린 시절엔 내면 깊은 곳에 접혀 있는 흰 날개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터. 그래서 먼 하늘에 있겠거니 하면서 두리번거렸던 것일까. 이제라도 내 안에서 찾아보자. 어쩌면 나는 지금 천사일지도 몰라. 이런 나를 발견해주는 일 자체에도 선한 의지가 녹아 있으리라.

- 이미 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하고 싶은, 타인 돕는 일을 적어보라.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적는다.

- 내면의 천사가 속삭이는 말이 있다. 비록 지금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리라 하는 선량한 속삭임. 스스로 민망하여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리라 싶은 일 혹은 말을 드러내본다.

- 내 생애, 기억속의 감동적인 장면, 경험, 생각, 상상 등을 그림 그리듯이 써본다. 시나리오처럼 대화 형식으로, 만화의 콘티처럼 간결하게, 낙서처럼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좋다. 형식은 자유!

아무리해도 내면의 선한 의지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소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보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이 남의 일 같기만 했다. 내가 누군가를 돕다니. 그럴 일 없어.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

이를테면 소매치기 아빠가 오늘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스스로 선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긴 어렵겠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어린 딸로서는 아빠야말로 유일한 천사다. 사회적으로는 범죄자지만 딸에게는 천사다. 당신이 지금 무엇이고 무슨 행위를 했건, 존재 차제로 천사인 것은 당신에게 친족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친족과 이웃 속에서 당신은 그저 마른 나무처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천사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린 시절 내가 천사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내면의 선한 의지, 내면의 흰 날개는 누군가를 의지할 때 펼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내게 기대올 때,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119 앰뷸런스처럼 발동한다. 알고 보니 나는 당신에게 의지하여, 천사다.

누구나 갖춘 내면의 선한 의지
인식하지 않았을 때 펼쳐진다
방어논리로 감춰온 악마 모습
인연 소중히 여기려 돌아본다

마음속 흉터와 이별하기

가정폭력피해여성 집단에서 이런 제안을 해본 적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욕설을 백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순간, 난감해하는 표정들이 떠오른다. "난 욕설을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들은 욕설을 적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주저하거나 막연해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끄적이기 시작한다. "시간을 넉넉히 갖고,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보세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백지 앞면도 모자라 뒷면으로 넘기는 사람이 생긴다. 적으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조용히 눈자위의 눈물을 지우거나, 깊은 한숨을 내 쉬기도 한다. "아유, 더 이상 못 적겠어." 적던 펜을 탁, 내려놓는 사람도 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물었다.

"우리는 왜, 내가 알고 있는 욕설을 적으라고 할 때는 적을 수 없었는데, 내가 들었던 욕설을 적으라니까 술술 적게 될까요?"

"알고 있는 것하고 들은 것하고는 다르니까요. 정말 들은 욕설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해요. 적다가 너무 참혹해서 다 적지도 못했어요."

"아, 그렇다면 지금 백지에 적은 욕설은 누가 적으신 거죠?"

"내가….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네…."

내 안에 이런 욕설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경우와 내 의식 안에 험악한 욕설들이 장전돼 있음을 아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깊이 뿌리박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인생수업〉이라는 저서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말이다. 언젠가 자신의 몸과 귀를 통해 나의 내면에 서식하게 된 욕설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그러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그 욕설을 내지르기 십상이다. 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이 내게 없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양치기 목동이 없는 양떼 상태다. 글쓰기로써 그 욕설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그런 욕설이 있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다. 당신은 이제 그 욕설을 양치기처럼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내 안의 악마. 온몸이 끈적한 점액질로 가득하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송곳니가 길게 뻗은 얼굴로 상징되는 캐릭터. 그런 불쾌한 것들이 나의 내면에 있을 리 없어.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 우리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자기변론의 대가로 성장한다. 나는 그런 사람 아냐. 나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지? 자기변론의 방어막은 각자 삶의 기억 혹은 상처에 따라 두텁거나 얇다. 두텁든 얄팍하든, 자기 안에 험악한 욕설이나 살의, 저주, 배신, 배은망덕, 증오, 욕정 따위가 병기창의 병기처럼 즐비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니 순간적 상황에 따라 그 병기는 제멋대로 발사된다. 내 안에 방치된 블랙박스 같은 것이어서 그것의 오작동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행위는 그런 점에서 치유적이다.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기 좋은 예술 양식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악마성, 부정성에 대해 깍듯이 예의를 갖춰 이별식을 거행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생리와는 거리가 먼 예술 양식을 찾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줄을 잇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시나 소설 속에 치유의 샘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마치 물냄새를 맡은 목마른 포유류처럼 감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시인 안도현은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상처와 흉터와 광기와 결핍에 주목하라. 두고두고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 감춰두고 싶은 것, 그래 그것을 써라."

당신은 내 안의 악마성을 떠나보내기 위한 작은 재단 만들기 팁을 하나 얻게 된 순간이다. 굳이 시나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아니, 누구나 다 이런 작업 속에서 시나 소설을 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흉터에 주목하게 된다면. 당신은 곧 그 흉터와의 이별을 준비하게 된 셈이다.

- 내가 들었거나,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설 적어보기

- 지금도 견디기 힘든 나에 대한 비난, 힐난, 수치심 유발 발언 등을 구어체로 적기

- 세상 모든 존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하고 싶은 악마적 행위 적어보기

-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채우고 싶은 '돈, 명예, 사랑'에 대해 드러내기

- 스스로에게 악마적 의도로 내지르고 싶은 욕설이나 행위 드러내보기

- 생애 가장 가난했거나 물질적으로 참혹했다고 여겨지는 시기의 마음 드러내기

- 생애 가장 불안, 좌절, 혐오, 슬픔, 분노가 들끓었던 시기의 감정 표현하기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누구인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때로 피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를 지켜보는 것과 당신이 당신을 지켜볼 때, 누가 더 친근한 존재인가. 아쉽고 우습지만, 잘 알 수 없다.

생애 인연의 고리를 이어가는 첫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물건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때로 맞기도 하고 때로 틀리기도 하겠다. 나를 지켜볼 때와 나와 동일시돼 있는 순간이 있으므로. 나는 인연의 고리를 이어가는 첫 대상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두고자 한다. 나라고 하는 이 대상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기도 하는 이유다. 내 안의 악마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또한, 나의 최초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도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장(지사명)	연락처	
손문철 (대구지사)	T 053-768-8008	H 010-2813-8008
이도경 (부산지사)	T 051-405-9402	H 010-5640-888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T 062-512-5003	H 010-2629-1508
조동제 (전북지사)	T 063-910-8977	H 010-8642-7733
성낙두 (경남지사)	T 051-512-1761	H 010-3860-7008
박영애 (영주지국)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화엄사
- 주 소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209
- 주 지 : 석담 (속명 : 이현수)
- 승 번 : 1901-284

위 본인은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과 동시에 조계종 제적원 서식에
따라 환계 그리고 환속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박재완의 PhotoEssay



바람 앞에서

바람이
바람이 아닐 때가 있다
무심히 지나가는 그 바람에
문득 가슴도 아파
삶은 하염없이 스러진다
겨우 향 한 자루 피워놓고
돌아오는 길
그렇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㊲ 안중근 의사

감옥에서도 자유로웠던 위대한 삶

나는 오랜 세월 많은 재소자들을 만나왔다. 특히 사형수들을 교화하면서 살았다. 많은 수감시설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내게는 그런 수감시설 중에서 좀 더 특별한 곳이 있다. 중국 뤼순 감옥이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곳이다. 그곳이야말로 나에겐 '법당'이었다. '안중근'이라는 한 시대의 영웅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그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또 한 번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30년 넘게 안중근 의사에게 미쳐 살았다. 안중근 의사가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온 것은 1984년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의 센다이에서 열린 '전국 교도소 재소자 교화 전국대회'에 초청인사로 방문했을 때였다. 다이린지(大林寺 · 대림사)라는 절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비가 세워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안중근은 일본 근대사의 영웅이자 조선의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이다. 안중근이 우리에겐 영웅이지만 일본인에겐 그럴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의 유묵비가 세워져 있다니, 그것도 안중근 의사의 글씨로 기념비를 세웠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한 걸음에 다이린지로 달려갔다. 다이린지는 시골에 있는 작고 조용한 절이었다.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이 새겨진 유묵비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유묵비를 보고 안중근 의사와 지바 도시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유묵비는 센다이의 지사가 지바 도시치와 안중근 의사를 기념해 세운 것이라고 한다. 다이린지 영정각 한 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다른 한 쪽에는 지바 도시치와 그의 부인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위패 옆에는 과일이 놓여 있었다. 안중근을 감시해야했던 일본 군인은 평생 안중근을 추모했다. 그리고 그 일은 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감동스러운 만큼 나로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나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추모하는 마음도 분명 지바 도시치만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이린지를 둘러보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다.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는 그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영웅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장 귀국하여 온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안중근'을 알리고 다이린지에서의 일을 알리고 싶었다. 그때부터였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를 알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내 일처럼 하고 있다. 뤼순 감옥도 여러 차례 가보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뤼순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장소를 비롯해 사형수들의 묘지와 주변을 살펴봤지만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방문한 삼중 스님.

"우린 안중근 의사 너무 몰라"
가장 뜻깊은 사형수의 이름

그리고 뤼순 감옥에 추모비도 새웠다.

내가 안중근 의사의 삶에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르겠다. 안중근 의사 역시 사형수였기 때문이다. 나는 교화를 위해 전국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을 많이 만났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의 마음속에도 본래의 마음은 있었다. 그 어딘가에 숨어 있는 본래 마음을 찾아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당연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형수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할 수 없었다. 죽음을 받아놓은 사형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안중근 의사를 본적은 없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을지 알 수 있다. 더구나 다른 사형수들과는 다른 사형수였기에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깝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늘 죽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유 없는 분노와 우울, 두려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안중근이라는 사형수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생에 대한 집착, 미련, 두려움이 없었다. 교도관과 법관을 비롯해 그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이국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평화를 원했던,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안중근은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뤼순 감옥에서도 언제나 반듯하게 앉아 책을 읽고 기도를 했다.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함께 잡혀온 동지들을 걱정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고 의연할 수 있냐고 묻는 교도관에게 안중근은 껄껄 웃으며 "목숨을 걸고 했으니 이미 목숨은 내놓은 것이고, 두려울 일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오히려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었으니 기쁘다고 했단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도 그랬다. 그는 거사를 마친 후 도망치지 않았다. 당시 저격 현장에 있었던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는 평생을 살면서 안중근의 의로움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흔적들을 밟으며, 그에게서 부처를 볼 수 있었다. 그가 비록 '도마(토마스)'라는 다른 종교의 이름을 받았지만 나는 그의 삶에서 그의 불성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연을 받아들이고, 생에 집착하지 않는 그의 빈 마음에서 부처를 볼 수 있었다.

"아들 중근에게,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날도 가장 먼저 어머니와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안중근은 늘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군인이었지만 늘 자상하고 다정한 아들이고 남편이었다. 사형수 안중근, 그는 내 생에서 가장 뜻깊은 사형수의 이름이다.

정리=박재완 기자





대행 스님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칠석과 백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질문 : 불교에서는 해마다 칠석, 특히 백중이 큰 행사로 치러지는데 칠석과 백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답변 : 우리가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를 많이 상상하시죠. 옛날이야기든 뭐든 이치가 담겨 있지 않는 말은 없을 겁니다. 옛말에도 까치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을 이어 주고, 까마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달을 해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 둘 것은 전체가 인연 아닌 것이 없지만 칠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태어남을 뜻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해서 칠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을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불성이 둘 아니게 인연이 되는 그런 인연의 소치를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거나 똑같죠.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칠성, 말하자면 칠석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근본은 칠성입니다. 그러나 칠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는 바로 이 칠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불성이 밝으면 모두 다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뭐, 꿈을 꾸었는데 꼭 죽을 꿈이라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잘못돼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놓고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꾸게 한 것도 너니깐 너만이 잘못되지 않게도 할 수 있다.' 하고선 관하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만 갖는다면 그게 다 훌렁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 현재 ·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칠석날 마음을 밝게 해서 백중에 모든 조상의 영령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백중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시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 화탕지옥, 또 오무간지옥, 독사지옥 등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그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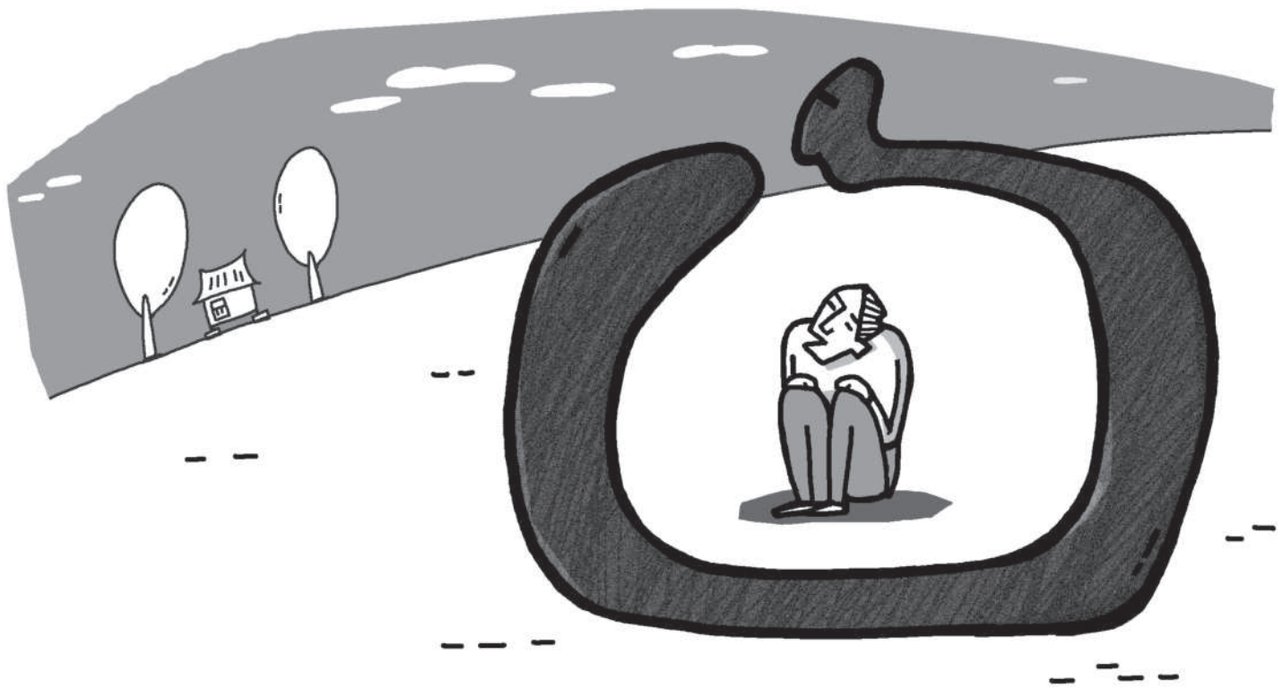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현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면 다음 세상에 나올 때도 또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거는 뭐,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립니다. 내 몸 통이 독이니까요. 내 몸 통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 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백중을 지내는지 아시겠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 지옥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나고 또 소로 태어나고 뭐, 독사로 태어나고, 가지각색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경우와 같이 백중 때는 남한테 모함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다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중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자꾸자꾸, 그저 되는 대로 해야죠.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고만이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콩씨 얘기도 가끔 하고 무우씨 얘기도 가끔 합니다. 무우씨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어서 심으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승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석이든 백중이든 그 의미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취하십시오.

허공 길을 걸으려면

질문 : 큰스님께서 '허공을 걷는 길'이라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서슴없이 허공 길을 걸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 왜 부처님께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했겠습니까? 이 중세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모습 속에는 모두 곤충주머니예요. 우리가 이 곤충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공 길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나가는데 관습과 의식이, 욕심이 모든 게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죽어도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옥고를 딛고 나가려도 디딜 수가 없고, 강을 건너려도 강을 건널 수가 없고, 또 불수레를 건너가려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있다는 관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세계에서 살아나가는데에 어떻게 살아야 편안하겠습니까? 이 부딪치고 부딪치고 이렇게 수레가 돌아가면서 부딪치듯 우리가 살아 있으니깐 이렇게 부딪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지혜도 생기고 물리도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불'이요, 바로 부딪치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교'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언어지, 어떠한 중들만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국한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자체는 끝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만 않는다면, 먹는 게 없다면 이렇게 강도도 없을 거고, 사기도 없을 거고, 싸움도 없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먹으니깐 똥을 눠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 잠자고 똥 누고 먹고 이러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요 말끝에 한마디 또 하죠. 부처님께서 둘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연방 수억겁을 거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 나온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 A22면으로 계속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

그냥 근본에다 맡기고 관하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 A21면에서 계속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고…. 개구리라고 그래 봤자 올챙이 과정을 거쳤단 얘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똥 안 누고, 그렇게 세 가지를 다 안 할 수 있다면 그건 별천지죠. 부처님의 한도량이죠.

부처님 한마음 속에서 그 보살들의 이름들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도 우리 마음속에서, 한마음 속에서 때로는 내가 용도에 따라서 관하면 지장이 돼 주고, 용도에 따라서 또 관하면 관세음이 돼 주고 그렇게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길잡이가 돼 주시고, 때로는 또 해결사가 돼 주시고, 때로는 보디가드도 돼 주시고 아니 되는 거 없는데 그렇게 그냥 발버둥이를 치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지 공덕이 있는 거지, 자기 뿌릴 믿지 않고 형상이나 이름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 저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하나 벗어나서 천차만별의 중생을 다 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 뜻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내 도량 아닌 게 없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계로 벗어나서 똥 안 누고, 먹지 않고, 잠자지 않는 세계로 벗어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체 없는 그 내 마음의 처소가 될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배움의 길에 있어서 몸체를 두고도 속도가 너무 빠르게 저 거리를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보이지도 않고 바람만 설설 일어나죠. 이런 거 짐작해 보셨습니까? 또 '체가 없는 나'가 허공 길을 걸어갈 때는 가고 옴이 없이 갔다가 전체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갖다 보기도 하고 또는 요만하게 만들어서 갖다 놓기도 하는데 큰 거를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보려면 다 못 봅니다. 작아야 전체를 볼 수 있죠.

이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허공 길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이 마음도리…, 아까 얘기했죠.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걸어오는데 이 계단을 올라올 때 마음이 올라온다면 점프해서 그냥 올라올 수 있는데, 몸으로 오려니깐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할래도 할 수 있는 마음의 도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둘 아니게, 즉 말하자면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또 내 작용 아닌 게 없고, 내 공식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휴! 내가 이거 뭐, 중생인데 이렇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때에 떼어 놓을 수가 있겠나?" 이러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다 그렇게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용건이 들어와도 나는 허공 길을 걸어야만 되겠죠. 찰나에 그 모습이 돼야, 화해서 나투어야 만약에 어떤 짐승이 나를 청했다, 짐승을 건져야겠다 이런다면 짐승 속에 내가 짐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어요.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공용이다, 공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화해서 남을 건져 주는 데도,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 한 마릴 건져도 내가 수많게 화해서 그 고기로도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걸 건지는 겁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계단을 한 걸음에 올라올 수 있다면 강은 못 건너가겠습니까? 강 속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은산철벽은 못 뚫겠습니까? 삼라대천세계는 못 가겠습니까? 두루 하죠. 덮고도 받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아야 요다음에도 허공 길에 발을 떼어 놓을 때 서슴없이 떼어 놓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선과 악을 다 놓으라 하는 까닭은

질문 : 수행을 함에 있어서 선은 될수록 많이 닦아야 할 것 같은데 악과 선을 다 놓으라 하심은 무슨 까닭인지요.

답변 : 우리는 마음이 말입니다, 항상 육체 속에도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의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 씁니다. 그걸 같이 하지 않는다면 바로 악과 선이, 즉 말하자면 이 양면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생명들이 이거는 아군이다, 적군이다 아이, 이게 생겨 가지고 말입니다, 싸움들을 하다가 만약에 아군이 이기든 적군이 이기든 간에 이기면 그냥 살이 굳어지거든요. 생명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나쁜 악신이다, 선신이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악한 것이 나한테 왔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선신 따로 찾고 악신 따로 물리치고 이러지 마시고 모든 게 한생각에 악신도 선신이 되고, 선신도 악신이 되는 겁니다. 한 생각 차이에. 선신은 선신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악신도 악신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강도 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무슨 부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난해서 사람 죽일 필요도 없더랍니다. 너무 찾아봐도 없어서. 그래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가만히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울면서 하는 소리가, 혼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낼 너희들 차비도 없으니 어떻게 학교를 가느냐. 쌀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굶겨 보내느냐."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걸 보고 그냥 훔쳐 가지고 왔던 거를 거기다 도로 놓고, 그 사람네들에게 주고 돌아섰답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때에 따라서는 선신이 되는 겁니다. 선신도 때에 따라서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런 겁니다.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놔라. 놓는 그 가운데서 미묘한 바로 참마음이 생기느니라. 그게 바로 평등공법이며 그것이 바로 법신의 정신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질문 :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추구하다 보니 마음이 공허해지고 조바심이 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인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답변 : 예전에 어떤 시인이 봄을 찾아 밖으로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 너머에는 행복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일에는, 내달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내일과 저곳에다 희망을 걸고 사람들은 고된 현실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거짓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어저께에는 내일로 불리었으며, 그때 오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워 보였던 그날이 오늘로 된 지금, 사람들은 오늘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과 저곳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저 먼 어느 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결코 진리를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선지식들에게만 있다고 믿고, 진리는 먼먼 훗날에야 있으며, 저 우주 끄트머리의 어떤 신비스러운 나라에만 있다고 믿는 이들은 진리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밖에서 봄을 찾던 시인은 자기 집에서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먼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스승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처럼 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나의 마음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자랄 때 빼고 늙은 뒤에 빼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습니까? 행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저것 자는 것 빼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행복이란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느 때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빽이 자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마음이란 이름은 하나 가졌지만 그 마음이라는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돈도 안 내고 쓰는 마음이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누구나 대신 살아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파 주고 죽어 주고 깨달아 주고 똥 눠 주고 잠자 주고 또는 밥 먹어 주고, 이러는 거 대신해 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각기 모두 이 마음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미묘한지….

우리들의 몸뚱이 자체가 꽃 한 송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꽃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잎이 한 송이에 많이 붙어 있죠? 한 몸뚱이에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귀합해서, 즉 말하자면 '주인공 자체다' 이렇게 자기 뿌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큰 일이 벌어졌든 작은 일이 벌어졌든,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든 믿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바로 모든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잘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못되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모든 거는 네가 형성시키고 네가 이끌어 가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되 진짜로 믿는다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겨 놓고는 또 못 믿으니까, '아이구, 이것이 정말 되려나?' 이러거든요. 그거는 건네주었던 결재 서류를 도로 뺏는 거와 같아요. "이 서류를 다 좀 해결해라." 해 놓고는 도로 가져오는 격이죠. 줬으면 해결하게 믿고 내버려 둬야 될 텐데 그 서류를 도로 뺏는 격이란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빼앗다가 이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게 뭡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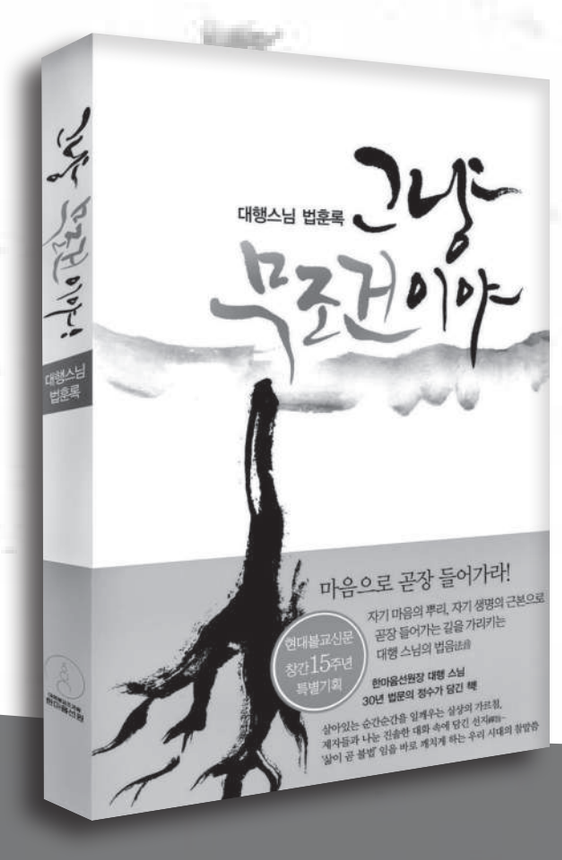
그러니 진짜로 믿는 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환이 없고 애고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업식이 무너지고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모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것이며, 모두 그렇게 되는 까닭에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얻고 삶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날 이름만 부르고 이름을 믿고 간다면 그건 안 됩니다. 주인공이라는 이름은 "얘, 아무개야! 물 한 컵만 다오." 할 때처럼, 물 한 컵만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은 거지,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떠 가지고 오는 데 이름은 하등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나 따로 있고 주인공 이름 따로 있고, 해 달라는 놈 따로 있고 해 주는 놈 따로 있다면 그건 안 되죠. 과거에 살던 자기더러 현재 자기가 '하, 이놈아, 네가 살면서 다 저지르고 네 놈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뿌리, 네 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나를 형성시킨 것 아니냐. 네 놈이 형성시켜서 네 놈이 끌고 다니는데 네 놈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하고 진짜로 맡겼을 때 그 참자기가 나서서 일을 보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죠. 과거에도 자기가 살았고 현재에도 자기가 살고 미래에 또 오늘 자기가 살 겁니다. 모습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뀌질 뿐이니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님을 꼭 알고 밝은 주인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겁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빽이
자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크루얼티 프리’를 아시나요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동물실험 하지않고 동물 성분 없는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관심 증가

비건운동 미용상품까지도 확산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바르지 않는
채식주의 新버전 세계적 트렌드로

‘크루얼티 프리’ 불살생계의 실천
관련 철학을 사회 영역 확장해야
변화는 선각자들의 실천서 비롯돼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물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이른바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화장품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소비자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어서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바야흐로 채식주의는 ‘먹고 입는’ 행위의 도덕적 성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용모를 가꾸는’ 일에 이르기까지 거듭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의식 수준은 곧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이기도 하다. 먹거나 입기 위해서 혹은 피부에 바르기 위해서 동물의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일은 종족주의 이외의 다른 정당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불고기를 먹고 모피옷을 입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져야 마땅한 이유이다.

최근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서 ‘비건(Vegan)’을 선언했던 사람들이 화장품에서도 ‘비건’을 실천하자는 쪽으로 행동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 모피나 가죽 옷을 걸치는 대신 인조 모피와 인조 가죽 옷을 입는다. 또한 동물실험을 하거나 동물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거부하며 살고자 한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을 ‘채식의 해’로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세계적 트렌드는 동물을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바르지도 않는’ 새로운 버전의 채식주의가 주도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교양시민의 자질마저 의심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화장품 속에는 동물성분에서 추출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물질들은 필연적으로 동물들의 극심한 고통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생행위를 수반했다. 실천윤리학자인 피터 싱어는 1975년 발간한 저서 〈동물해방〉에서 그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인가를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의 등장은 단지 동물실험이나 동물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의 차원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윤리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크루얼티 프리’의 철학을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점차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기 음식을 자제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불살생계의 현대적 실천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에 더해 ‘크루얼티 프리’ 미용제품까지 고수한다면 불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본다. 동물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낮다. 이처럼 주위를 조금만 유심하게 살펴보면 불자로서 사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불살생계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삶의 태도는 어쩌면 불살생계 5.0버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돌이켜 보면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항상 조금 앞서간 사람들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의 생산과 소비는 윤리적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이자 불살생계의 21세기적 실천이라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조금씩이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조짐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자칼럼

유기동물 향한 자비심에 감사

윤호섭 취재부 기자

얼마 전, 신문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본지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기획기사인 ‘유기동물과 불교’를 잘 읽었다는 독자였다. 나이가 지긋할 것 같은 목소리의 독자께서는 비구니 청솔 스님이 홀로 운영하는 경남 사천의 견공선원(청솔아토유기견묘쉼터) 연락처를 물어봤다. 기사를 읽고 강아지를 입양하고픈 마음에 신문사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독자 덕분에 견공선원을 취재한지 약 두 달 정도 지나 다시 청솔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님에게 입양을 문의한 독자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보도 이후 견공선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자, 스님은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미안함을 먼저 표했다.

청솔 스님은 우선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5월 14일 인터넷판 기사 게재 이후 쉼터 통장에는 많은 후원금이 입금됐다고 한다. 스님은 견공선원 SNS에 5~6월 후원내역을 공개하면서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주셔서 몇 년간 구조한 아이들로 초토화된 진주쉼터 도배장판 공사를 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전주쉼터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후원자들이 후원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청솔 스님이 SNS에 올린 20장의 사진 중 절반은 통장 후원내역이었다. 5월 13일까지 견공선원은 통장에 단돈 2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도 이후 5월 말까지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적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잇달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보냈다. 이 기세는 6월까지 어느 정도 이어져 청솔 스님은 도배장판 공사 외에도 그동안 유기동물 구조과정에서 빚진 동물병원 진료비를 일부 갚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른바 ‘케어 사태’ 이후 유기동물 구조로부터 멀어진 대중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종교계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출가수행자가 개인적으로, 또 어느 단체보다 투명하게 쉼터를 운영한다는 점이 대중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견공선원은 또다시 쉽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물밀 듯이 이어진 후원물결은 대부분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후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려인들이 개와 고양이를 더 이상 기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쉼터에 무턱대고 맡기는 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쉼터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방사를 고민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버려진 동물들 죽으라는 소리냐”는 손가락질뿐이다. 결국 청솔 스님은 무거운 짐을 홀로 어깨에 메고 다시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개인이 동물을 구조하거나 기를 여력이 있어야만 유기동물 문제에 힘이 되는 건 아니다. 여유가 되는 대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쉼터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비에서 비롯된 따뜻한 마음과 자그마한 실천이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82-5644-83
(예금주-청솔아토유기견묘쉼터)

社 說

광우 스님 원적에 부쳐

광우 스님은 이 시대를 위한 참다운 불교의 역할과 더 나아가 종교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한 선지식이었다. 특히 당시로서는 불교계서 관심을 두지 않은 양로원과 고아원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비구니 스님들의 후학양성을 위해 결성한 우담바라회도 바로 교육과 포교, 사회복지란 원력 하에서 였다. 특히 〈법화경〉을 번역 출간해 널리 법보시하고 법화산림도 10년 넘게 여는 법화행자로의 길을 걸었다.

스님이 걸은 법회행자의 길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이 자체에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스님은 50년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보살행으로서 모두가 이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 전하는 지혜다.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하면서 부처가 되라고 강조한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어떤 걸림도 없이 평안해지면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다. 광우 스님은 마지막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걸림 없는 삶을 보였다. 스님께서 남긴 말을 모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의 좋은 문구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스님의 원적에 부처 스님이 평생의 화두로 삼아 정진해온 그 길에 대해 대중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법화경〉은 보살행을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대로 한송이 아름다운 연꽃이 되는 것이지요. 연꽃 같은 세상, 좋지 않나요?”

강제수용 사찰 구제책 마련을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 도시공원에 자리 잡은 사찰 대부분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지자체들이 법 시행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토지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주들에게 돌아가 오랫동안 종교활동을 이어온 사찰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표사례는 대구 범어공원을 들 수 있다. 공원의 60%가 개인 사유지인 데다 땅 주인만 200여 명에 달한다. 이 사유지는 대구광역시가 1965년 범어공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50년간 재산권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긴 시간 동안 지자체가 토지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토지주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졌다. 하지만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립은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토지주와 녹지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으로 전환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사찰은 재산권 행사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지만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게는 수십 개의 사찰이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각 종단은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사찰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천년의 숲, 천년의 사찰

BTN 불교TV 영상 공모전

2019.03.25(월) ~ 10.30(수)

공모주제
한국전통(불교)문화와 사계(四界), 불교행사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출품방법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메일로 접수
(접수처:btnucc@btn.co.kr)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이름_작품명〉으로 기재
*반드시 연락처 기재바랍니다.

시 상

대상(1팀)	상금 500만원 및 상패
금상(1팀)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은상(1팀)	상금 100만원 및 상패
동상(3팀)	상금 50만원 및 상패
입상(5팀)	상금 10만원 및 상장

*응모편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작 없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

공모일정
응모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 2019년 10월 30일(수)
발 표 : 9월 중 BTN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공모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2~4인) 구성으로 참여 가능

출품규격
해상도 : 1920 X1080
포맷 : mp4, avi, mov 등의 HD 고화질 동영상
작품분량 : 30초~5분 이내
영상형식 : 스팟, 뉴스, 찬불가 뮤직비디오, 60초 영상 등

문 의
공모전 담당자 : 02) 3270-3417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BTN홈페이지(www.btn.co.kr)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

고질적인 기침, 가래

100시간 동안 직접 고아만든 김씨영동고

전통韓方비법 영동고는 단 1%도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포닌 성분을 높이기 위한 구증구포방법으로 6년근 증숙도라지와 천종산삼을 모체로 염기서열 99%일치한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김씨영동고 골드

현대해상 생산물 배상책임 1억원



김씨공心단은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씨공心단
순금 99.9%로 코팅, 1box=10丸

도라지향만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도라지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그런 제품, 누구나 쉽게 만들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도라지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김씨 영동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누구나 복용이 가능하도록 **방부제, 설탕, 색소를 일체 넣지 않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전통, 시간, 정성을 담아 자신있게 권합니다.

김씨 영동고 골드 1Box=500g

문의)1577-7217 www.sspark24.co.kr

캐나다 직수입, 하루한알이면 섭취끝

상상루테인 오메가3

매일 식사를 해도 충분하게 생성하지 못하는 비타민 D와 E, 불포화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오메가 3, 눈 건강을 돕는 루테인 등 4가지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제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상식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4가지를 매일 꼬박꼬박 챙겨먹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캐나다에서 직

4가지 필수 영양제를 한 알에 모았다

루테인+오메가3+비타민 D+비타민 E



1일 1캡슐!

수입한 루테인과 오메가3, 비타민 D와 비타민 E 등 4가지 성분을 결합한 영양제 '루테인 오메가 3'를 개발했다.
하루 한 알만 먹어도 4가지 약을 먹는 것과 같은 이 영양제를 캐나다로부터 직수입, 상상바이오가 특별가로 제공한다. 2박스 6개월분이 7만원, 4박스 12개월분을 13만원에 판매중이다.
온가족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 만큼 하루 한 알로 건강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필수 영양제이다.

용량 : 1200mg×90캡슐×2박스(6개월분)

농협 351-0705-5852-13 상상바이오
문의)1577-2298 www.sspark24.com

수천년 이어온 중국의학이 밝혀낸 당뇨비법

당박사 NTB-A

당뇨병이 가장 잘 발병하는 연령층은 40대와 50대로, 당뇨 합병증은 당뇨병 진단 후 보통 10년이 지나 가장 많이 발병된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전신에 나타나는 합병증 때문이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당뇨 망막증, 신장염, 당뇨성 족부(발) 괴저, 말초 신경염 등과 연결된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당뇨

당뇨환자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과립형 특수의료용도식품(당뇨환자용) 4.0g×60포(총 240g)

당박사 NTB-A는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35년간 당뇨병을 연구한 김동철 박사가 150차례 중국 전통 명의들을 만나 당뇨병을 함께 연구하며 NTB-A라는 추출물을 내놓은 결과이다.
올바른 생활습관, 운동과 함께 당뇨환자용 제품의 현명한 선택만이 고통스러운 당뇨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일 것이다.

문의) 031-970-6050 www.sspark24.com

선조들의 지혜로 탄생한 '무르벤'

국내산 참옻, 콜라겐 많은 닭발로

시리고 아픈 무릎관절과 몸의 냉기를 확 잡아라



참옻들 정태영 대표

나이가 들면서 주로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신체 부분이 무릎이다. 주로서서 일을 많이 하기에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결과 시큰거리거나 시리고 아프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했기에 무릎이 더 상했을 것이고 이 때 선조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 무릎을 보호하는 건강식품을 만들어 먹었다. 바로 참옻과 닭발의 만남이다.
이 시도는 연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오랜기간 옻을 연구한 ㈜참옻들 정태영 대표와 남편 박기영씨에 의해 실용화 됐다.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부친이 예전에 이런 상황에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진액을 만들어 준 기억이 났습니다. 부친은 국내 최초로 옻전문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참옻들' 연구소장이기도 한 박기영 씨는 "이 진액은 아내의 무릎을 낫게 했고 이를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다."며 "그래서 '조선시대 왕에게 옻을 공납했던 충북 옥천에 터를 잡고 본격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콜라겐 덩어리인 닭발이 고농축 영양을 제공했고 여기에 옻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상승시켜 자신이 나았다고 판단했다. 옻은 위장질환이나 혈액순환, 부인과 질환 등에 효험이 있어 오래 전부터 전통약재로 활용돼 왔다.

전통 끊긴 옻제품 복원 등 옻으로 다양한 식품 개발

물이 맑고 토질이 좋은 옥천은 2005년 옻산업 특구로 지정됐고 정 대표와 남편의 오랜 연구 결과로 '무르벤'이 탄생했다.
"80년 이상된 100% 국내산 토종 옻나무와 닭발을 최적의 비율로 결합시켰습니다. 여기에 여러 한방 약재를 첨가함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높은 농축 진액 '무르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 대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은 옻독이 올라 옻건강식품은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젠 옻독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성이 보장됐다."며 "계속 옻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해 인기가 높으며 남편과 무독화옻 등 12가지의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몸에 냉기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몸이 잘 붓고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하며 푹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앓아 짜증을 자주 낸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데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손과 발이 찬 분이라면 전통약재를 쓴 이 무르벤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지하 200m 암반에서 뽑아 올린 게르마늄 물은 옻 추출물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품질유지를 위한 표준 매뉴얼도 만들어 품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남편과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만들기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공기 맑고 물좋은 옥천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니 늘 행복하고 기쁘다"고 밝게 웃었다.

www.sspark24.co.kr
문의)1577-7217

9988 건강장수 "천연발효식초"서 찾는다



250ml×2개

해발 700미터 청정자연에서 장인의 혼을 담은 현미 산나물 힐링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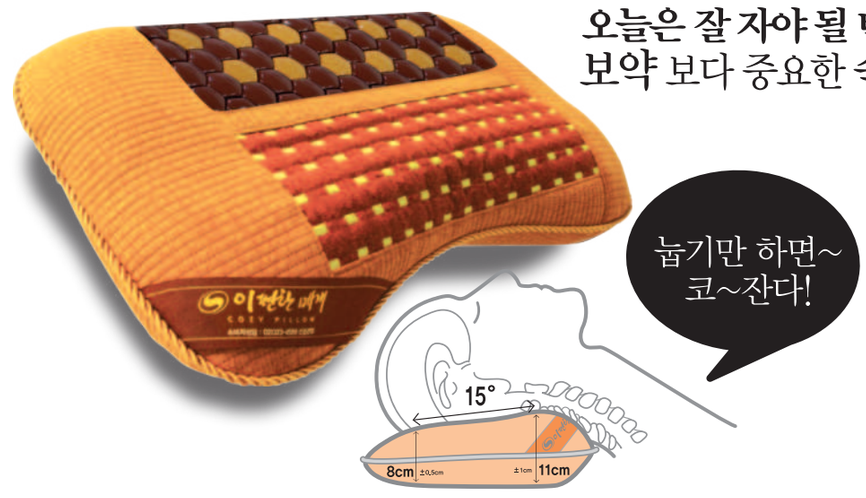
평창 700m, 천연암반수와 야생산나물

자연의학자 박국문 씨. 그는 한 때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늘 자연의 삶을 동경해 왔다. 마침내 결단을 내려 미국에서 한의학과 자연의학을 공부하고 켈리포니아 한의사 생활을 하다 귀국, 2002년 봄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 평창에 자리를 잡는다.
평창은 공기가 맑고 천연암반수는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 이곳 평창에서 농진청 과제에 당선되어 지원을 받아 탄생된 새로운 개념의 천연발효식초가 나왔다. 바로 "현미산나물힐링식초"다. 해발 700m에서 자란 산나물과 과일은 일교차가 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다. 평창에서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천연암반수를 사용한다.

힐링식초는 3단계(알코올 발효, 초산발효, 숙성)의 제조과정에 모두 항아리를 이용한다. 오랜기간 발효항아리에서 숙성된 식초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천연의 묘약이다.
이미 식초는 각종 메스컴과 경험자들의 체험을 통해 알려졌듯이 신진대사, 피부건강, 피로회복, 변비 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현미산나물 힐링식초는 영농조합법인 〈힐링700〉이 출시한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식초를 하루 두차례 소주잔 1/2정도에 생수를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데 신진대사와 활력, 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식사후 마시는 것도 개운하다.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조미로서 식초를 활용하게 되면 식감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작은 투자로 가장 확실한 건강효과를 볼 수 있는 힐링식초, 가까운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최상이다.
상상바이오는 현미산나물힐링식초를 1세트(2병) 50,000원, 두세트(4병) 90,000원 특별가로 판매중이다.

농협 351-0913-8968-53 상상파크
문의)031-970-3286
www.sspark24.com

드르렁 코소리~끝



오늘은 잘 자야 될 텐데…
보약 보다 중요한 숙면

눕기만 하면~ 코~잔다!

이편한베개는 베개의 형상을 인체공학적으로 제작하여 자연스럽게 머리가 뒤로 젖혀져 기도가 열 리게 되므로 잠자는 동안 호흡을 원할하게 하여 코소리 예방에 도움을 주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남성용(cm) : 47(가로)×28(세로)×11(앞높이)×8(뒷높이)
여성용(cm) : 47(가로)×27(세로)×10(앞높이)×7(뒷높이)

인체공학적 설계로 숙면과학을 여는
이편한베개

문의)1577-2298 www.sspark24.com



생전 〈선문촬요〉를 읽고 있는 광우 스님. 이 책은 1952년 광우 스님이 직접 사경했고, 김동화 박사가 제자(題字)했으며, 혜봉 스님이 제책 했다.

“바르게 믿고 행동해 바른 깨달음 이뤄라”

태허당 광우스님

〈1925~2019〉

한국 비구니 원로 태허당 광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역사’ 라고 수식할 수 있는 수행자다. 스님의 일생에서의 주된 키워드 중 하나가 ‘최초’ 이기 때문이다.

광우 스님은 1940년 국내 최초의 비구니 강원인 상주 남장사 관음강원의 최초 졸업생이며, 1956년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4년제 정규대학(동국대)을 졸업했다. 당시 스님은 ‘양복 입고 대학에 다닌 비구니’ 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58년 성북구 삼선동 망월산에 정각사(正覺寺)를 창건한 이래 불교계뿐만 아니라 여성, 학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활동한 스님은 2007년 조계종 최고의 비구니 스승에게 수여하는 ‘명사(明師)법계’ 를 최초로 품서했다.

광우 스님은 비구니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지식이다. 스님은 1968년 2월,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과 함께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우담바라회’ 를 결성했다.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구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우담바라회의 1차적인 사업목표였다. 또한 회관을 기반으로 승가교육 · 포교 ·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가졌다.

“실천하는 불교, 이웃들과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드는 일에 비구니가 앞장서야 한다”는 광우 스님의 원력은 비구니 스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로 인해 1985년 전국비구니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광우 스님은 1995년부터 제6 · 7대에 걸쳐 8년 동안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전국 비구니회관 건립을 주도했다. 스님은 임원들과 전국사찰을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전력을 다했고, 2003년 8월 19일 역사적인 전국비구니회관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광우 스님은 지난 2012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스님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비구니회장이었던 광우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불사기금 모연을 위해 대행 스님을 처음 만났다. 당시 대행 스님은 광우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진들이 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금 85억 원을 쾌척했다. 이것이 인연으로 도반이 된 스님들은 입적 때까지 교류를 이어가며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광우 스님은 “정말 고마웠던 도반 중 한명은 진관사 진관 스님이다. 1968년 비구니회 발기때부터 같이 일을 하고 당시에도 부회장을 맡아 수고했다”면서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스님이 아니었으면 비구니회관 불사는 어려웠다. 120억 원의 불사금 중 85억 원을 한마음선원에서 쾌척했다. 조계종 7천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불사는 그렇게 회향됐다”고 밝혔다.

광우 스님은 자신이 창건한 정각사를 중심으로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바른 깨달음을 이뤄가는 사찰’ 이라는 의미의 사찰명은 김동화 박사가 지었다. 당시 광우 스님은 어린이 ·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일반신도 법회를 개설하고 매주 정기법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정각사 법회는 저절로 소문났다. 황성기, 원의범, 홍정식, 김동화 박사 등 당대 최고 불교학자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서울 소재 유수 대학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훗날 지식인으로서 한국사회 곳곳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정각사의 포교 사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7년간 매월 펴낸 사보 〈신행불교〉 발간이다. 처음 〈신행회보〉에서 〈신행불교〉로 이름을 바꿔 통권 324호까지 간행한 이 잡지는 문서포교에 큰 몫을 했다. 군부대, 교도소, 해외까지 널리 배포되며 부처님 법을 전했다.

〈신행불교〉의 모토는 정신(正信) 정행(正行), ‘바로 믿고 바로 행해 참사람 되자’ 로 이것은 정각사의 신행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표였다.

정각사는 시대를 앞서 신도들의 교양을 위해 수준 높은 대중강좌를 열기도 했다. 전각가로 유명하신 안광석 선생, 한국 다도(茶道)를 대중화시킨 효당 최범술 스님 등을 모셔 큰 호응을 얻었다.

스님의 전법은 정각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맡아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초석을 다졌다. 1989년부터 6년간 관장을 역임하면서 서울 목동신도시 청소년 교화모범시설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광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스님은 1987년 샤카디타가 처음 창립될 때부터 한국 대표로 참가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이같은 해외 불교활동의 업적을 인정받아 1998년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SASANA KEERTHI SRI 명예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우 스님의 원력에 바탕에는 〈법화경〉이 있다. 포교활동도 주로 〈법화경〉 강설로 이뤄졌다. 정각사를 창건할 당시 스님은 〈법화경〉 권지품의 ‘일체중생 희견여래’ 를 포교사의 모델로 삼았다.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이끌어
대행 선사와 깊은 교류 나눠
〈법화경〉바탕으로 수행 · 포교
정각사 창건… 정기법회 개설
문서포교지 〈신행불교〉 발간

출가 이후 스님은 철저한 ‘법화행자’ 였다. 1956년부터 10년간 부산 소림사에서 〈법화경〉 산림을 했고, 사숙인 금룡 스님의 당부로 매년 열흘씩 〈법화경〉 강설을 했다.

정각사 창건 이후에도 〈법화경〉 수행은 이어졌다. 조석예불을 마친 뒤 반드시 〈법화경〉을 한품씩 읽기를 수행의 정업으로 삼았다. 1986년 〈묘법연화경〉을 번역출간하며 대학 도서관까지 법공양을 했다. 이 책의 특징은 독송할 때 운율이 잘 맞고 뜻이 명료하게 번역된 점이다. 또한 스님은 법화경 6만 9천 84자를 매일 기도하듯 사경했다.

광우 스님은 베품을 낙으로 삼았다. 평생 후학 양성을 위해 시주금을 기꺼이 내어놓는 ‘학승(學僧)의 대모(代母)’ 로도 통했다. 스님은 돈이 생길 때마다 절 살림을 늘리기보다는 한 명의 인재라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현재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진 중 많은 스님들이 광우 스님의 학비 지원으로 공부를 마쳤다.

광우 스님은 매일 긴 염주를 돌리며 독경과 암송을 했다. 폭우가 쏟아져도 큰법당 조석예불을 거르지 않았다. 수행자로서 처음과 끝이 한결 같음을 알 수 있다.

80년 정각(正覺)의 길을 걸은 광우 스님. 스님의 법명처럼 ‘밝은 지혜의 빗줄기(光雨)’ 로 다시 우리에게 현현하길 발원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광우 스님이 걸어온 길

1925년 12월 11일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출생

1939년 직지사에서 성문 화상을 은사로 득도. 남장사에서 혜봉 대화상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직지사 서전 비구니선원에서 안거

1940~41년 동화사 부도암에서 안거

1944년 남장사에 개설된 최초의 비구니 강원 ‘관음강원’에서 대교과 졸업, 이 기간 중 혜봉 대화상에게 〈법화경〉 사사

1945년 선산에 문수사를 창건하고 혜봉 대화상 지도로 〈선문촬요〉 등 선어록 강독

1956년 뇌허 김동화 박사의 권유로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국대 졸업 후 남장사에서 100일기도 성만 후 대전 세등선원 조실 고봉 선사 문하에서 정진

1958년 부산 소림사에서 비구니 금룡 스님에게 건당하고 당호 ‘태허’를 받음

1958년 김동화 박사의 권유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망월산 정각사 창건하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김동화, 홍정식, 원의범, 황성기, 홍영진, 김대은 등 당대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해 어린이법회,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일반법회 개설 운영. 또한 매년 일주일간 법화산림 개설

1960년 서울 청룡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니계 수지

1969년 월간〈신행불교〉 창간. 사찰에서 간행한 최고수준의 문서포교 전문잡지로 평가받은 〈신행불교〉는 1996년까지 27년 동안 통권 324호 발행

1985년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별소계단(別所戒壇)의 증사(證師)로 추대되어 1994년까지 수계산림 지도

1986년 환갑을 맞아 묘법연화경 전7권을 사경 및 법화경을 새로 번역해 3천부 간행하여 전국 사찰과 주요 불자들에게 배포

1989년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두 차례 역임하며 대통령 표창 수상

1995년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출. 제6~7대 회장 역임하며 비구니 숙원사업이었던 비구니회관 건립에 주도적 역할 담당

1996년 조계종 비구니 별소계단 전계대화상에 추대

1998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열린 국제삼단대계 계단의 교수아사리에 추대

2007년 조계종 종단 사상 최초로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明師)에 추대

2019년 7월 18일 법랍 80세, 세납 95세로 정각사서 원적

조계종 원로 비구니 명사 태허당 광우 스님 49재 일정

- 초재 7월 24일 오전 10시
- 2재 7월 31일 오전 10시
- 3재 8월 7일 오전 10시
- 4재 8월 14일 오전 10시
- 5재 8월 21일 오전 10시
- 6재 8월 28일 오전 10시
- 49재 9월 4일 오전 10시

매주 수요일 정각사 대웅전에서 올립니다.
문의 (02)742 1231



광우 스님은 당시로는 드물게 이웃종교인들과도 마음을 열고 교류했다. 사찰에서 수녀님들과의 기념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명성 스님, 가운데 광우 스님)



생전 상좌, 손상좌 스님들과 행복하게 웃고있는 광우 스님의 모습. 말년에 몸이 편찮아도 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스님은 삶 자체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광우 스님은 부산 소림사에서 1956년부터 1966년까지 10년 넘게 법화산림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비구니스님이 법상에 오르는 일은 드물었다.

대중과 고락 함께한 법화행자

광우 스님 감로법문들

우리를 바른길로 안내하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만큼이나 큰 복이다. 비구니 명사 태허당 광우 스님은 대중들에게 삶의 길을 일러준 훌륭한 선지식이셨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스님이 삶 속에서 보여준 행지(行止)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다. 비록 지면을 통해 스님의 행지를 전할 순 없지만 평소 남긴 가르침이 다시 법향으로 전해지길 기원하며 정리해본다. **노덕현 기자**

행이 있으되 믿지 않아 교만스레 되지 말고, 신이 있으되 행 없어 어리석지 말고 육바라밀의 지침을 잘 받들어 수행해 나가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넉넉한 바람처럼 왕래하는 운수가 되리라. 마음의 끈을 다 풀고 하늘을 오르는 연처럼 이 속박된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자 **〈신행불교〉 中**

창밖의 빈 나뭇가지를 응시하며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만지고 내 행색을 훑어본다. 수없이 법을 말해 오면서 얼마나 법답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추운 사람들의 추위를 헤아려 보았던가.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했던가. 이어지는 물음에 뭇중생을 향한 참회의 합장을 올린다. **〈신행불교〉 中**

불교수행자는 삼독을 끊고 그 본성을 맑게 해야 합니다. 최후의 목적은 참다운 열반을 얻는 것이지요.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깝게 열반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늙고 부서진 수레지만 가야할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법대로살아라〉 中**

출가수행자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대행자라 할 수 있지요. 스님들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귀의를 받아야 하는 삼보의 하나라는 점에서 수행자가 수행자 답지 못하면 그 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스님이 반듯하게 잘해야 합니다. 행동은 수행자 답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왜 내가 출가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요. **〈한국의대종사〉 中**

희견보살은 자기 몸을 소신공양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에게 희견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요. 아마도 포교하는 법사가 돼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바로 마하파자파티 같은 비구니 대법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나의 자질과 능력은 차치하고 서원만은 그렇게 세웠지요. 그래서 정각사를 짓고 포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나의서원 나의신행〉 中**

한국불교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치마불교라는 여성폄하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성의 힘을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여성 스스로가 '부처님의 제자' '석가의 딸'이라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성불자도 매우 적극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사회 봉사에 열심입니다.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고양시켜 나간다면 오명이 예명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中**



추도사

만월 빛처럼 후학 등불 될 것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태허당(太虛堂) 광우(光雨)스님!

사바에 홀연히 오시어 각별한 신심과 원력으로 산하대지를 흔들더니, 이제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모든 불자들의 사표(師表)이며 비구니계의 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圓寂)에 드시니, 스님의 후학 제자들과 수많은 인연들은 그 슬픔을 가누기 어렵기만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미답의 길을 헤치며 위법망구의 삶을 살았고 인천의 스승으로서 표상을 보이셨으니,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려 애썼건만 스님의 덕행은 후대에 길이 감화를 미칠 것입니다. 전법과 수행에 전념하시면서도 인재 양성에 헌신하셨으니, 아무리 감추려 하셨어도 스님의 원력은 망월산 등성이 위에 뜬 만월의 빛처럼 후학들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비구니스님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여성 인권 신장과 불교 발전에 헌신하신 공덕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을 포함해 8명의 원로 비구니가 비구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명사' 법계를 서품받은 것은 스님의 헌신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10년 동안 법화경 산림법회를 열어 불교의 대중화와 인재양성에 진력해 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는 실천의 종교이며 법당 불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를 키우는 불사이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평소 말씀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수행, 종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백만원력 결집 불사를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태허당 광우스님이시여! 스님께서 걸으셨던 수행과 전법, 이타(利他)가 겸비된 원력행은 후학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결식을 봉행하며 스님을 기억하는 인연들마다 스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추모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니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여여한 인연일 뿐입니다. 흔적 없이 다시 오셔서 불자들의 아름다운 행원(行願)에 미소로 화답해 주소서.



법 어

보현행원 이루소서

종범 스님 前 중앙승가대 총장

광우스님! 광우스님!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가십니까!
여여히 오셨다가 여여히 가십니까!
밤낮이 없는 밝은 일광은 고금이 없지만
밤의 어두운 느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스님께서는
생멸이 적멸인 대승신심과
무주상 수행의 보살원력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미래세에도 일념신심과 광대원력으로
무생무멸하고 무장무애한
불가사의 해탈경계에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광수공양하고 보개회향하여
보현행원을 이루십시오!
광우스님! 스님께서는 평소에
바람은 떠날 때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가 갈 뿐이라 하셨지요
가실 때도 자취 없이 가시듯이
오실 때도 소리 없이 오십시오!
다시 이 사바세계에 속히 오셔서
보살원력을 이루어 주십시오!
太虛堂 光雨明師 覺靈이시여!



영결사

비구니계의 큰 사표

육문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법화행자로서 늘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머금으시며 한 점의 차별심도 없이 모든 사부대중을 따뜻하게 제접해 주셨던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황망하고 공허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사표로서 우뚝 솟은 모습으로 한국불교와 청정도량 정각사를 가꾸고 지켜주신 스님께서 세연을 다하시고 홀연히 떠나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열반적정의 법문 입니다. 그렇듯 자비롭고 인자하신 스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희들로서는 담담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스님을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스님께서는 종단이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법통을 외호하시며 비구니계를 대표하여 종단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원로 큰스님들, 학계의 고명한 석학들, 비중 있는 신도들이 항상 스님과 교유하며 불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진한 것은 평소 스님께서 보여주신 덕화가 얼마나 크고 넓었던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의 설립과 발전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스님의 모습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셔서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시고, 회관 건립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그 열정은 언제까지나 저희 후학들에게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스님께서는 사바의 인연을 접으시고 열반락의 세계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또 다른 원력이 시작되는 길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의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은 그 어떤 언설로도 채울 길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한 점의 걸림도 없는 수행력으로 오고, 가는 것에 자유자재하신 태허당 광우 큰스님. 열반락을 충분히 만끽하시거든 부디 다시 원통자재하신 모습으로 저희들 곁으로 오시어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조 사

문서포교 견인차

호진 스님 前 동국대 교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날엔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역시 위안이기도 하고 대안이기도 합니다. 겁(劫)을 두고 생과 사를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진데 이번의 이 삶은 수 많은 삶 가운데 하나의 삶일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감내해야할 부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번 생을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慧자 峰자 큰 스님을 아버지 겸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고, 어머님을 사숙 겸 도반으로 하셨습니다. 일찍이 출가하셔서 좋은 스승과 도반들을 만나 수행과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도시의 포교 도량에서 긴 세월동안 역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배움과 가르침을 함께 하셨습니다.

일찍이 서울 변두리에 정각사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그곳을 현대 한국불교학의 요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한국불교학계의 큰 학자들이 대부분 정각사 법당에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불교학을 그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서 포교를 위해서도 초창기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후진들을 키우는데도 힘을 아끼지 않아 적지 않은 학생스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구니계를 위해서는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했지만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비구니회를 육성하고 회관을 세우는데 주축이 되어 많은 노력을 바쳤습니다. 스님의 일생을 기록한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를 다시 읽으면서 스님께서 참으로 많은 공부와 일과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생전에 베푸신 가르침과 보여주신 실천, 더불어 이룩하신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 남아 스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조 사

여성불자 위상 진작

명성 스님 운문사 회주

태허당 광우 큰스님, 평생 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신 스님께서 이렇게 홀연히 열반에 드시니, 각별한 인연을 가졌던 저는 그저 아득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스님께서는 저보다 대여섯 살이나 연배이시면서도 언제나 도반으로, 단짝으로 대하시며 어려운 일을 상의하시는 등 격의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평생 크게 의지했던 선배이자 도반이셨던 스님께서 이렇게 훌쩍 떠나가시니, 항상 비구니가 가야 할 길과 갖춰야 할 자세를 알려주셨던 큰 스승의 부재를 후학들은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광우스님, 생전 스님께서는 늘 현대는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자비행이 필요한 시대라며 비구와 비구니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비구든 비구니든 출가자로서의 수행과 전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비구니와 여성불자들의 위상을 크게 진작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스님께서 열반적정의 크나큰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대법석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후학들은 이 자리를 평소 스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쳐왔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스님의 거룩한 행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곳 망월산 자락 정각사는 우리시대 걸출한 비구니 대 스승을 배출한 신흥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태허당 광우 큰스님. 지금 이 순간 스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 미혹을 물러나게 하는 천둥 같은 가르침, 관음의 화현이라고 해야 마땅할 보살행 등 스님의 일생을 통해 경영해보이신 삶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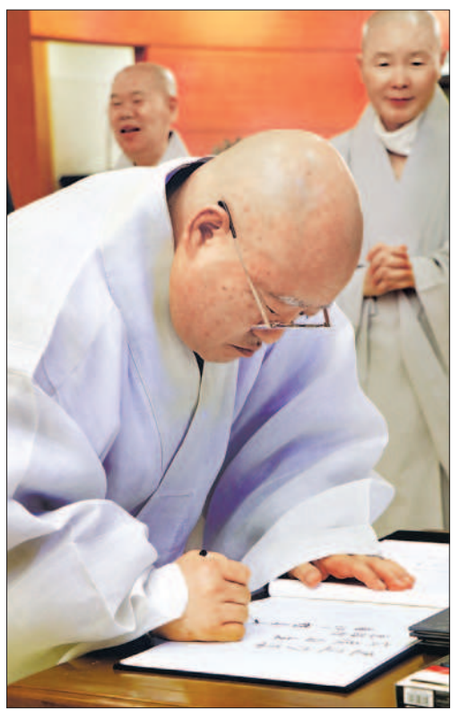
그러니 스님, 너무 오래 열반락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저희들 곁으로 원생으로 돌아오셔서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후학과 중생들에게 다시금 복혜의 대 법비를 내려 주십시오.


조계종 고사위원장 지안 스님이 스승을 잃어 슬픔에 빠진 정목 스님을 위로하고 있다.

“모두에게 베풀었던 완전무결한 수행자”

원행 스님 등 주요인사 조문 잇달아


광우 스님과 대행 스님의 인연으로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들이 빈소를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빈소를 찾아와 조문,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한국불교 비구니계 원로이자 비구니 최초 명사 법계를 품수한 태허당 광우 스님이 7월 18일 법랍 80세, 세수 95세로 원적에 든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광우 스님의 빈소에는 7월 19일부터 조계종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장 일찍 조문을 다녀간 스님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었다.

분향을 마친 뒤 식장을 나온 정우 스님은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스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산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일찍이 서울에 오셔서 정각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에 애쓰셨다”고 광우 스님을 추모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무를 뒤로 하고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광우 스님 제자인 정목 스님에게 “비구니계 큰 어른께서 입적하셔서 상심이 클 것 같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에 정목 스님은 “입적하실 때까지 큰 고통 없이 계시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종무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조문을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빈소에는 생전 광우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쌓은 스님들이 찾아와 문중을 위로하고, 인연담을 전하며 광우 스님의 유지를 잘 이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1970년대 문학을 공부하던 스님들을 정각사로 초대해 만찬을 제공해준 광우 스님의 품 넓은 마음씨를 높이 기렸다. 성우 스님은 “1972년에 오현 · 정휴 스님 등 당시 문학에 심취한 스님들을 광우 스님이 초대했다. 그저 문학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였다”면서 “먹을거리가 넉넉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광우 스님은 정말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주셨다. 문학과 예술에 참 관심이 많은 스님이자 대장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자 정목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쯤부터는 삼베에 풀칠한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우셨다. 누군가가 오래 전에 흔났던 얘기를 꺼냈더니 은사스님께서는 마음 아프게 해 미안하다며 사과도 하셨다”고 말했다.

대강백이자 고시위원장인 지안 스님도 광우 스님의 빈소에서 오래 전 일화를 소개하며, 광우 스님을 ‘밀행으로 보살도를 펼친 수행자’라고 평가했다.

지안 스님은 “한번은 내 상좌가 공부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우 스님이 직접 나를 보러 동국대에 찾아왔다. 스님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좌 잘 키우라며 100만원을 주고 가셨다”면서 “보살의 화신 같은 분이었다. 친소관계 없이 공부하는 이에게 늘 베푸셨다. 평소 문상을 잘 안 다니지만 광우 스님은 마음 속 깊이 존경하고 있어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안 스님은 “아마도 광우 스님 같은 분은 다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제자들에게 광우 스님처럼 완전무결한 수행자로 살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산증인이자 최고 어른으로 손꼽힌 광우 스님의 원적 소식이었지만 빈소에는 슬픔보다 아련함, 그리고 존경심이 자리를 대신했다. 빈소를 찾은 스님들은 애통함을 표하지 않고 광우 스님의 제자들에게 “큰스님 유지를 잘 따르라”는 당부를 남겼다. 무엇보다 광우 스님 제자들이 빈소에서 놀란 것은 제자에게 말하지 않은 광우 스님의 보살행이 조문객마다 있었다는 점이다.

정목 스님은 “많은 스님들께서 은사스님 빈소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소중한 일화들이 있었다는 게 큰 감동”이라며 “한결같이 ‘광우 스님처럼만 살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제자들이 은사스님 유지를 받들어 참된 수행자로서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행 선사와 깊은 교류를 나눴던 광우 스님을 추도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도 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조문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 신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스님들은 선법가 ‘대장부’ ‘푸르게 살라’를 음성공양 올렸으며, 정목 스님의 요청으로 영결식에서도 선법가를 음성공양 했다.

한편 이날 빈소에는 원로의원 일면 스님,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변영섭 前문화재청장 등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조문을 다녀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내가 만난 광우 스님

무모한 도전의 바람막이 돼 주신 어른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나는 태허당 광우 명사 스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와 존경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떠올린다.

스님을 가까이 찾아 뵌 것은 1982년 일본으로 유학의 길에 오르면서다. 평소 친밀하게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비구니계의 어른이시고 유난히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와서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서였다. 처음 정각사 골목길을 내려가면서 평소에 잘 모시지도 않았던 어른을 찾아뵙는다는 것이 좀 서먹한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대문을 들어섰다.

잠시 뒤에 근엄하시면서도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자리하고 앉으셨다. 그렇게 가까이는 처음 찾아뵌 젊은 학승(學僧)을 어루만지듯 다독이듯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인사를 올리고 일어서는 내손을 잡고 다시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뒤 학비와 미국화폐 100달러를 내 손에 쥐어 주시면서 외국에 가는 사람에게 외국 돈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나서 외국돈을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100달러는 외국유학을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학비를 걱정했던 마음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마치 부적과도 같은 큰 힘을 느끼게 했다. 생전에 이 말씀을 올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한국에 나올 때는 꼭 들르라는 말씀을 따라서 꼭 인사를 올렸고 학비를 보태주셨다. 크신 자비와 격려에 이제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두 번째는 태허당 광우 명사 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2002년에 대만에서 개최된 제7차 샤카디타(Sakyadhita)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하고서 제 8차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온 일 때문이었다.

나는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살아온 허물이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한국비구니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인연으로 석담 스님과 조은수 교수의 권유에 따라 샤카다타 8차대회를 한국에 유치해온 것이다.

막상 대회 유치의 깃발을 들고 와서 보니 전국비구니회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독단으로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를 받아온 셈이 되어 버렸다. 그때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폭포수처럼 받을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다. 나의 무모함을 절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다.

대회가 개최될 시기에 광우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을 내려놓으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로 밑거름이 되어 주셨다. 광우 스님과 회장직을 이어 받으신 운문사 명성 명사 스님, 그리고 진관사 진관 원로 스님이 그 때 보살펴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했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무모한 짓이었던 제8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공로를 세 분의 어른 스님께 올린다. 그리고 회장직을 물러나시면서 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광우 명사 스님은 참으로 덕인(德人)이시고 대인(大人)이셨다. 나에 대한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넓은 가슴으로 막아주셨고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때 길을 가르쳐 주신 어른이셨다. 제8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한국불교는 세계불교, 특히 세계여성불교에 눈을 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예를 올린다. 다시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시어 미래 한국불교의 큰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향을 사르고 청원하는 바이다.

‘훤훤장부’ 같던 스님, 감사합니다



맹난자
수필가

광우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58년 여름, 보문사(탑골승방) 남별당에서였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나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를 알아와 발표하라는 세계사 선생님의 숙제를 안고 일조 스님을 찾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속 시원히 일러줄 분이 올 테니….” 나는 무작정 그 분을 기다렸다. 저녁때가 되자 양복차림의 훤칠한 남자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동국대 불교학과 재학생이던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이광우(李光雨)스님이었다. 다생의 인연이 지중했음인가. 광우 스님이 정각사(삼선교 소재)를 짓던 그 해에 우리 집은 절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남별당 스님께 이 소식을 듣고 친구와 둘이서 절을 찾았다. 나는 교복을 벗은 대학생이 되었고 스님은 남장 차림의 양복이 아닌 먹물 옷을 입고 계셨다. 삭발로 드러난 둥그스름한 두상과 온화한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1960년 이것이 광우 스님과의 두 번째 재회였다.

스님의 서가에서 김동화 박사가 쓴 〈불교학개론〉을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당시는 실존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때라 카뮈나 사르트르를 읽어야 행세깨나 하는 줄 알던 때였다. 마침 이화대학 〈교양국어〉 책에서 만난 ‘실존주의와 공(空)사상’에 관한 박종홍 교수의 글은 마른 짚단에 불을 긋듯 내 가슴에 옮겨 붙었다.

실존철학에 관해 하이데거에게 물으러 갔더니 〈금강경〉을 보라는 그분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돌아와 서양철학자인 선생이 〈금강경〉을 공부하였다는 그 요지를 간추려 15부나 손으로 써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는 취지문을 각 대학교 철학과, 국문과, 심리학과 등에 보냈다.

단층 양옥이던 정각사 다다미방은 대학생들로 꽉 찼다. 마침내 김동화 선생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실험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걸 아시는 선생님께서 〈유마경〉은 희곡적이라며 그 다음은 〈유마경〉을 공부하자고 하셨다.

〈법화경〉은 홍정식 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원의범, 황성기, 이영무, 이재창 선생 그리고 미국서 막 귀국한 김용정 선생을 모시고 ‘과학과 불교’ 등 사이사이 돌아가며 특강을 듣도록 해주셨다. 정각사 법당은 한국불교의 산실이며 불교문학의 요람이었다. 문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김구용 선생의 『벽암록』 강의는 법당 안을 환희심으로 넘쳐나게 했다.

정각(正覺)을 주창하는 정각사에서는 ‘바로 알고 바로 행해 참사람 되자’는 정신(正信) · 정행(正行)을 근본으로 삼아 ‘신행회’를 설립하고 〈신행회보〉를 펴 내기에 이르렀다. 1969년 2월의 일이다.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병원에서 돌아온 첫아이는 밤에 열이 40도에 육박했다. 조산한 아이를 안고 나는 부처님께 간구 드렸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10년을 당신을 위해 종질이라도 하겠다’ 고.

그 다음 날 광우 스님께서 아기를 보러 우리 집으로 건너오셨다. 스님은 서윤길 학생이 등사판을 긁어 소식지를 만들어왔는데 중단되었으니 그걸 나더러 맡아달라는 말씀이었다. ‘그래! 이거로구나’ 하고 부처님께 약속드린 10년을 그 일에 바쳤다.

광우 스님의 원력으로 제호를 〈신행불교〉로 바꾸면서 문서포교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그 시대에 작은 등불의 역할이나마 감당해 왔다고 자부한다. 작지만 알찬 책이었다. 10년을 봉직하는 동안 신문이나 불교잡지에서 청탁서가 왔고 글을 보내면 이름 아래 ‘수필가’라는 호칭이 붙었다. 이름의 도(盜)가 되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해서 수필가가 되었다. 만약 스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스님은 말없이 나를 불교로 이끈 인로왕보살이셨다. 때로는 스승이요, 때로는 자애한 어머니같이 60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다.

1961년 동국대에서 판토마임 연극을 발표했을 때 갑자기 스님께서 참석해 주신 일, 신문로에 사는 스님의 동창생 집으로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듣던 일본 노래 ‘가래 스즈끼’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칠석날 저녁, 정각사 마당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함께 부른 이 노래. “어처피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우지 않는 마른 갈대다” 초가을 저녁, 나는 꽃의 은유를 감상적으로 아껴가며 좋아했었다. 그러나 광우 스님은 ‘우담바라회’를 이끌며 꽃을 피워내셨다. 비구니 스님들의 전당인 전국비구니회관을 이룩해내었고 서울시립목동청소년회관 관장 재임 시에는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사람이 교육문화과 과장으로 스님을 보필할 수 있었던 것도 불연(佛緣)이다.

아침 조례 때 뵙던 스님은 60년 전, 훤훤장부와도 같았다. 공(公)을 위해 사(私)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무상해 육탈된 모습으로도 깊은 선정(禪定)에 드신 듯,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나는 더 큰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받곤 했다.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두 손을 모우고 사방을 둘러본다.

훈훈한 자비의 法雨를 내려주십시오



미산 스님
상도선원장, 카이스트 교수

광우(光雨)스님.

현대 한국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큰 원력을 가지셨던 어른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법당 불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를 키우는 불사’입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1980년대 초 제가 동국대 선학과에 다닐 때 매주 마다 스님을 뵐 수 있는 인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각사에서 주는 수석 장학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청년법회 지도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법회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따뜻한 점심 공양을 함께 하시곤 했습니다.

때로는 현대불교학의 석학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모임에 일부러 저를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명한 현대 학승과 불교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체계적인 불교학을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사회와 불교계에는 개혁을 열망하는 대중들이 연일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종단 개혁을 외치며 단식 농성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장병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스님께서 정성스레 돌보아 주신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 개혁은 외적인 행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재를 키우고 보살피는 일을 통한 내적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스님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영국에 유학할 용기를 갖게 되었고, 학업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스님. 지금 한국불교의 교육 인재 불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스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시는 이 시점에 세상은 더욱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최첨단 디지털 문명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큽니다. 인공지능, 로봇, 가상 · 증강 현실, 빅데이터 등 기존의 상식과 종교의 교의를 뛰어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 줄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법화경〉을 신수봉행(信受奉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설하신 진정한 의도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일체중생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스님,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시어 맑고 향기로운 지혜와 따스하고 훈훈한 자비의 법우(法雨) 내려주십시오. 스님의 법화행화(法華行化)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천동굉지(天童宏智) 선사의 선시(禪詩)를 삼가 영전에 분향하고 올립니다.

자비방편사(慈悲方便事)
자비심 가득한 방편 교화가
촉처유공부(觸處有工夫)
닿는 경계마다 공부로 피어나고
응변수성색(應變隨聲色)
소리와 형상 따라 응하여 변화하니
단단반주주(團團盤走珠)
둥근 쟁반 위에 구슬 알알이 구르네

불기 2563년

칠석 백중

땅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히라는 뜻으로

초불을 켜는 날이 칠석이고 백중입니다.

모습이 없으면 부닥침이 없고, 상대가 없으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생전에 이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흙을 고르고, 물을 촉촉하게 주어서 밭을 갈아 놓는다면

자기 씨에서 싹이 났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싹으로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중에 헤매는

그러한 영혼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은연중에 자기 마음의 뿌리를 알게 될 것이며

자손 또한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행선사 법어 –

2019년 (칠석) 8.7 (백중) 8.1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